

“그림을 통해
내 마음속의 꽃을
활짝 피웁니다”



박진 환희

사랑의열매 

2023
08

제11회 전국 초·중·고등학생 사랑의열매 나눔공모전

주제 | 나에게 도움이 되는 나눔



공모대상 초·중·고 학생 및 동 연령대 아동·청소년

공모주제 '나에게 도움이 되는 나눔'

- ① 내가 생각하는 나눔이란?
- ② 나눔에 대한 자유로운 표현하기
- ③ 학교(일상)생활 속 다양한 나눔 실천방법 소개
- ④ 환경과 어울려 사는 나눔이야기

공모분야 글 / 그림 / 쿼츠 디자인

응모일정 · 접수기간 : 2023. 7. 4 ~ 2023. 8. 31
· 수상자 발표 및 시상식 : 11월 중(예정)

시상내역 교육부장관상 4명
시도교육감상 50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상 60명
주최·후원기관상 300명

응모방법 공모전 홈페이지
(www.spectory.net/chest/love)
* 단체 접수는 우편을 통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단체접수 양식 다운로드)

문의사항 공모전 운영사무국 * 운영시간 : 월-금 09:30 - 18:3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Tel. 02-6953-1410
· E-mail. chest@contestweb.net

고체 치약독자 체험 후기

제로 웨이스트 제품 직접 사용해봤어요!

● 평소 고체 치약에 관심이 많았는데 보내주신 고체 치약을 사용해보니 거품도 잘 나고, 치아 구석구석까지 잘 닦여 개운합니다. 고체 치약을 계속 사용한다면 쓰레기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강북구 김인숙 님



*김인숙님의 체험후기 손그림



● **1일차** 고체 치약이 낫설게 느껴지고 사용하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막상 입에 넣으니 잘 부서지고 질감은 좋았지만, 치태는 덜 씻기는 느낌이었습니다.
3일차 조금은 익숙해진 듯 첫날보다는 깨끗하게 닦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입 냄새는 나지 않지만 개운함이 부족한 듯해 칫솔질을 두 번씩 하게 됩니다.
5일차 고체 치약을 씹는 건 자연스러워졌지만, 여전히 거품은 아쉽습니다. 한 알로 한번의 양치질이 다소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대구시 북구 윤성혜 님

내 피부와 해양 생태계를 지키는 자외선 차단제를 보내드립니다

- ① **매월 20일**까지 사랑의열매 이메일 cckpr@chest.or.kr로 제로 웨이스트 제품 체험을 신청한다.
- ② 메일을 보낼 때 이름과 연락처, 받을 주소를 적는다. (총 3명 선정)
- ③ 일주일 동안 **제품을 사용한 후 간단한 후기**를 적어 인증 사진과 함께 사랑의열매에 이메일로 보낸다. (후기는 다음 달 '그린 열매 플러스'에 게재할 예정)



04 표지 이야기
꽃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박진 작가

06 나눔 여행
각양각색 취향대로 즐기는
여름 계곡 5곳

10 매슬랭
'남노갈비 서곡점' 박승택 대표

14 그린 열매
자외선 차단제 고르는 법

16 모두의 나눔
배움으로 만드는
내일의 희망

22 희망으로 채우는 세상
'아동·청소년의 자기 주도적 미래 설계를
위한 법 교육 및 진로 교육'
진행하는 청소년희망재단

26 내 인생의 한마디
강원 17호 아너
빌라 드 아모르 김종태 대표

30 소중한 진심
(주)천마기술단 박영산 부사장

32 나눔 이슈
제11회 사랑의열매 나눔공모전

34 열매 소식
나눔명문기업 공동 가입한
부산 15개 기업

36 나눔 소식
① 이등노동자를 위한 생수나눔 캠페인
② 제25회 전국 초·중·고등학생 백일장

38 착한기업
나눔명문기업 대전 3호 (주)맥키스컴퍼니

42 다른 그림 찾기

43 전국 열매 이야기

56 이달의 아너 소사이어티

58 전국 지회 뉴스

68 나눔 만화

이달의 표지



○ 박진 '환희'
41×53cm
oil on canvas

사랑의열매

• 모든 촬영과 인터뷰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했습니다.

발행인 김병준
발행일 2023년 8월 / 통권 196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회관 6층
만든이 사랑의열매 커뮤니케이션본부
구독안내 전화 02-6262-3000
팩스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05
기획, 편집디자인 한국경제매거진(주)
02-360-485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내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www.chest.or.kr)
하단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정기간행물 **구독** 혹은 **구독 취소**를 원하시는 분은
ckkpr@chest.or.kr로 성함과 주소를 보내주세요.



〈사랑의열매〉는 FSC® 인증산림에서 개발 관리한
재료를 제작한 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꽃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박진 작가

“눈부시게 아름다운 무언의 언어를 그립니다”

꽃은 말을 하지도 듣지도 못한다. 하지만 세상은 꽃에서 얼마나 많은 의미를 읽어내는가. 박진 작가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 무언의 언어에 주목했다. 글강은진 사진김기남

내게 큰 감동 주는 꽃

박진 작가의 작업실은 아름다운 꽃으로 가득 차 있다. 괜히 ‘꽃의 작가’가 아니었다. 그중에서 유난히 벚꽃이 많았다. <사랑의열매> 8월호 표지로 선정된 작품도 박진 작가의 대표작 중 하나인 벚꽃을 그린 작품 ‘환희’다. 벚꽃은 대개 봄을 상징하지만, 박진 작가가 그리는 벚꽃과 그 외 여러 종류의 꽃에는 계절이나 꽃말 등 일반적인 의미 이상의 것이 담겨 있다. “봄이면 산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벚꽃은 높은 지위를 뽐내는 고관대작이 아닌, 낮은 곳에서 함께하는 평범한 우리에게 이웃 같아 정이 갔어요. 은은한 연분홍은 요란하지 않아도 단아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죠. 작가로서 지녀야 할 덕목을 알려주는 듯했어요.” 박진 작가는 봄이 보내는 희망의 전령과도 같은 벚꽃에 유독 애착이 크다고 덧붙였다. 무더운 여름, 올해도 전국 곳곳에서 비 피해 소식이 들려왔다. 박진 작가는 벚꽃을 통해 봄의 희망을 기억하게 하고 싶었던 걸까. “세 살 때 홍역 주사를 잘못 맞아 청각언어장애를 갖게 되었어요. 저처럼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꽃이 친구처럼 느껴졌죠. 누가 미워한다고 피지 않고, 누가 사랑한다고 피는 것이 아닌 꽃을 보면서 큰 감동도 받았고요.”

표지 선정, 큰 기쁨

한 송이 꽃을 피우기란 생각보다 눈물겹다. 소쩍새가 그렇게 울고, 천둥이 치며 무서리가 내려야 한다는 어느 시구가 절로 떠오른다. 박진 작가의 꽃 또한 그런 치열한 과정을 거쳐 비로소 활짝 피어난다. 빈 캔버스를 앞에 두고 그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눈을 감고 마음속 꽃을 그리는 것이다. “나의 장애로 힘들었던 상황들의 어두운 면부터 생각하다 내 마음이 점점 밝아지면서 마음속 꽃이 피어나고, 나비와 사슴·벌 등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 순간 꽃을 표현하고 싶은 욕망이 솟구치며 캔버스에 그리기 시작합니다.” 박진 작가는 대한민국장애인미술대전 대상,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한국장애인미술가 희망축제한마당

최우수상 등 굵직한 상을 휩쓴 유명 작가다. 듣고 말하는 데 장애가 있음에도 수어와 필담, 구화까지 모두 가능한 그를 보면 얼마나 애쓰며 부단히도 살아왔는지 짐작이 간다. “그림은 친구로, 스승으로, 동반자로, 제가 많은 아픔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런 제 이야기가 담긴 작품이 <사랑의열매>를 통해 소개되어 정말 기쁩니다.” 꽃으로 말하는 작가 박진,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지금! 📌

작가 주요 profile

- 1986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 2000~2023 개인전 6회, 초대전 15회
- 2013~2023 국제아트 페어 16회
- 2022 박진 초대 개인전 <꿈속의 연가>
- 2022 한·중·일ART광주국제교류전
- 1983~2023 단체전 및 공모, 초대 기획 등 650여 회
- 2018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수상
- 현 (사)한국미협분과이사 역임, 국제한국장애인미술협회 대표

각양각색 취향대로 즐기는 여름 계곡 5곳

그저 발만 담그고 있어도 몸과 마음이 시원해지는 곳, 계곡.
물이 많아서, 기세 좋은 폭포가 있어서, 풍경이 멋있어서 더 즐거운
여름 계곡의 다양한 매력을 만나보자.
글강은진 사진 한국관광공사 각 지자체



최고의 관광 명소 동해 무릉계곡

신선이 노닐었다는 바로 그곳 무릉계곡이다. 많은 전설과 역사를 간직한 유서 깊은 명승지로, 1977년 국민관광지 제1호로 지정되며 '한국의 무릉도원'이라 일컫는다. 동해의 명산 두타산과 청옥산이 함께 만들어내는 계곡의 시작은 1,000명이 앉을 수 있다는 거대한 암반이다. 바위 표면을 타고 흐르는 계곡물은 그 자체로 한 폭의 산수화다. 완만한 산행길을 따라 학소대, 옥류동, 선녀탕, 용추폭포 등 절경이 즐지어 이어진다. 특히 쌍폭포는 무릉계곡의 3대 명소 중 하나이자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전국 8대 폭포 중 하나로, 두타산과 청옥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기세 좋게 부딪치며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려준다. 무릉계곡 근처에는 스카이글라이더·오프로드 루지 등 이색 체험 시설과 에메랄드빛 호수가 있는 무릉별유천지, 아이들이 물놀이하기 좋은 오선녀탕도 있어 다채롭게 즐길 수 있다. 물놀이부터 액티비티, 관광에 접근성까지 좋아 여름 최고의 계곡 피서지로 인기가 높다.

📍 강원도 동해시 삼화로 584 삼화사



8월까지 얼음 어는 밀양 얼음골계곡

삼복더위에 밀양 얼음골계곡을 어찌 빼놓으랴. 전국에는 얼음골이라 부르는 곳이 몇 군데 더 있지만, 밀양 재약산 기슭의 얼음골은 다르다. 4월부터 8월까지 얼음이 얼고, 겨울이면 반팔을 입어야 할 정도로 더운 김이 솟아나 '밀양의 신비'라 일컬으며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되고 있기 때문이다. 얼음골계곡의 주차장에 위치한 매점 옆으로 가면 물놀이하기 좋은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이 나온다. 얼음골에서 내려오는 물이 워낙 차고 깨끗해 여름이면 아침부터 물놀이 피서객이 북적인다. 얼음골 가는 길 다리를 경계로 수심이 깊은 곳과 얕은 곳으로 나뉜다. 실컷 물놀이를 즐기다 지루해질 무렵이면 결빙지까지 걸어가보자. 또 케이블카를 타고 '영남 알프스'라 부르는 산악 지대를 단숨에 감상해보는 것도 하루를 알차게 즐기는 방법 중 하나다.

경남 밀양시 산내면 삼양리



원시의 아름다움 간직한 삼척 이끼계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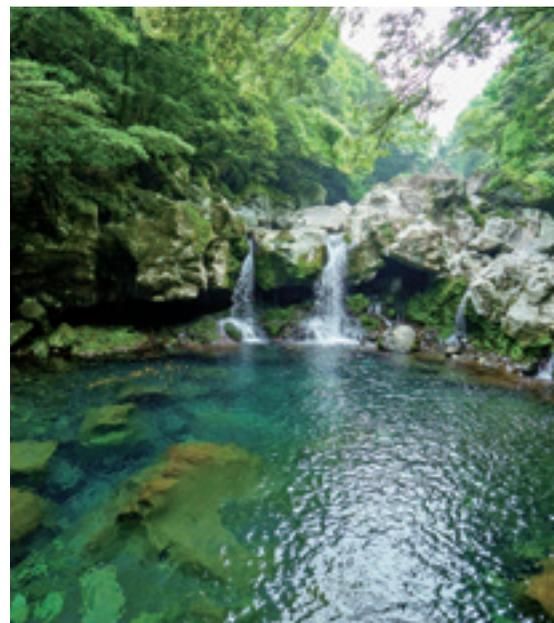
이끼계곡은 이름 그대로 진초록 이끼가 가득하다. 우리나라 3대 이끼폭포 중 하나로 손꼽히는 폭포가 있으며, 봉준호 감독의 영화 <옥자> 촬영지로도 유명한 계곡이다. 그만큼 신비롭기 그지없다. 강원도 삼척시 육백산 능선을 돌아 두리봉과 삿갓봉 사이에 꼭꼭 숨어 있는 이끼계곡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호랑이가 출몰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험준하다. 그래서 여름이면 바위마다 질게 뒤덮인 신비로운 진초록 이끼는 물론이고, 웅덩이처럼 깔린 이끼를 타고 내리는 부드러운 물소리와 깊은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더해지며 무릉도원이 펼쳐진다. 7~8m 높이의 이끼폭포는 주름치마를 펼친 형상으로, 가물면 가문대로 비가 오면 오는 대로 일부러 멋 부리는 것처럼 떨어지는 물줄기가 비경을 연출한다.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무건리 산86-1

도민들의 물놀이 핫플 제주 돈내코계곡

한라산 기슭에 위치한 돈내코계곡은 제주도민이 애용하는 물놀이 핫플 중 한 곳이다. '돈내코는 멧돼지들이 물을 먹은 하천의 입구'라는 뜻으로, '내'는 하천을 가리키는 제주 방언이다. 돈내코계곡은 물이 어찌나 맑은지 바닥이 흰색 보일 정도다. 또 한여름에도 몸을 담그고 있으면 이가 덜덜 떨릴 정도로 차가워 여름 더위를 날리기에 더할 나위 없다. 수심이 얕은 편은 아니어서 어른들이 물놀이하기도 좋다. 돈내코계곡에서 가장 붐비는 곳은 단연 원양폭포다. 5m 높이의 폭포에서 차디찬 물줄기가 실 새 없이 쏟아지고, 폭포 바로 아래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특히 백중날(음력 7월 보름)에 폭포수를 맞으면 모든 신경통이 사라진다는 얘기가 전해 내려와 이날이면 유독 인파로 북적인다. 주변에 돈내코유원지와 야영장이 조성돼 있어 한여름엔 늘 붐비는 도민들의 단골 피서지이니 하루 물놀이를 즐길 계획이라면 일찍 서두르는 게 좋다.

제주도 서귀포시 돈내코로 137



한나절 놀기 좋은 장성 남창계곡

내장산국립공원 입암산 자락에 위치한 남창계곡은 알음알음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물놀이 장소다. 언제 가도 물도 많은 데다 멋진 바위도 수없이 펼쳐져 있어 앉을 곳도 많다. 등산로를 따라 이어진 울창한 숲과 크고 작은 폭포가 계곡의 진수를 보여준다. 특히 백암산 상왕봉 사자봉에서 흐르는 물이 암벽을 타고 떨어지는 몽계폭포가 유명하다. 그렇다고 수심이 깊은 것은 아니어서 가족 여행객의 좋은 피서지가 되어준다. 근처에는 백숙 등을 파는 식당도 여러 곳이라 가볍게 떠나기 좋다. 내장산국립공원 주차장에 주차한 후 상류 또는 하류 한곳에 자리 잡고 계곡을 즐기면 된다. ♡

전남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전주 대표 향토 음식
'남노갈비 서곡점'
박승택 대표

“맛있다는 말을 들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맛의 고장답게 전주에선 꼭 먹어야 할 음식이 많다. 그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게 남노갈비의 물갈비다. 브랜드화에 성공하며 이제는 전주뿐 아니라 전국에서 남노갈비 지점을 찾아볼 수 있게 됐다. 그럼에도 남노갈비 서곡점을 방문해야 할 이유는 너무도 많다. 글이선희 사진서범세

전주 사람이라면 익숙한 그 맛

이옥례 여사가 1972년 전주 남소송동 사거리에서 남노갈비를 열며 매콤한 갈비 전골 요리를 선보였다. 적은 양의 고기로도 온 가족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개발한 '물갈비(남노물갈비)'였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남노갈비의 물갈비는 전국적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비빔밥과 함께 전주를 대표하는 향토 음식으로 꼽힐 정도다. 전주 시민에게 남노물갈비는 어린 시절부터 먹어온, 그래서 아주 친숙한 음식이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40여 년 넘게 전주에서 살고 있는 박승택 대표에게도 남노물갈비는 추억의 맛이다.

“학창 시절 부모님과 함께 남노갈비에 왔던 게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나요. 지금 남노갈비를 방문하는 손님 중 상당수는 저처럼 어릴 때부터 물갈비를 먹어온 분들이예요. 외지인만 먹는 관광 상품이 아니라 전주 시민도 자주 먹는 향토 음식인 거죠.”

박승택 대표가 남노갈비 서곡점 인수를 제안받았을 때 기쁨도 잠시, 걱정이 앞섰다. 모두의 기억 속에 있는 그 맛을 재현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 물론 35년 경력의 베테랑 중식 요리사인 터라 본사에서 진행하는 조리 교육만으로도 충분히 물갈비를 만들 수 있었다. 그럼에도 박 대표는 깊은 맛을 내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하고 또 노력했다. 마침내 맛에 대한 확신이 생겼을 때 비로소 남노갈비 서곡점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남노갈비 서곡점에만 있는 특별함

물갈비는 손질한 양질의 돼지갈비에 매콤한 소스를 버무려 육수, 콩나물, 당면, 채소 등을 넣고 바둑하게 끓여 먹는 요리다. 잘 모르는 사람은 재료는 본사에서 다 보내줄 테고, 레시피에 따라 소스만 버무리면 되니 참 쉬운 요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박승택 대표의 출근 시간은 새벽 6시로, 가게 문을 열기 4시간 전부터 하루가 시작된다. 손님상에 나가는 모든 식재료는 그의 손을 거치기 때문.





“예전부터 물갈비를 먹어본 손님은 저희 가게 물갈비가 딱 옛날 그 맛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요즘엔 이 맛을 보기 힘들다며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습니다.”

전주의 대표적 향토 음식으로 꼽히는 남노물갈비

본사에서 받는 식재료는 고기가 유일하지만, 그나마도 그냥 사용하는 법이 없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핏물을 제거하고 박 대표만의 특제 양념을 더한다. 많은 준비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따로 있다.

“육수 만드는 일이 제일 중요하죠. 미리 만들어놓으면 맛이 떨어져요. 그래서 아침에 만든 육수를 그날 모두 사용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른 오후라 해도 육수를 다 썼다면 그날 영업은 종료합니다.”

물, 양파, 멸치, 무, 비법 재료 등을 넣고 1시간 이상 팔팔 끓여야 하는 꽤 번거로운 과정을 거친다. 박 대표는 매일 커다란 들통 2개 분량의 육수를 만든다. 아무리 덥고 바빠도 소홀히 한 적이 없다. 정성으로 만든 육수를 넣고 만든 물갈비는 육질이 부드럽고 촉촉하며 간이 잘 배어 있어 맛있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 남노갈비 서곡점의 물갈비가 특히 맛있다는 후기가 결코 과장된 게 아니었다.

“임신부 손님이 다른 음식은 먹지도 못하는데 이상하게 우리 가게 물갈비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7개월간 2주마다 그 남편이 인천에서 전주까지 내려와 물갈비 4인분을 포장해가곤 했어요. 제가 ‘인천에 지인이 있으니 그쪽을 통해 보내주겠다. 고생스럽게 내려오지 말라’고 하니 남편이 일부러 가게에서 먹고 싶어 내려오는 거라며 오히려 제안을 거절하더라고요.”

이 부부뿐만이 아니었다. 박 대표의 물갈비에 반해 다른 지역에 남노갈비 매장을 낸 손님부터 관광지 와 가까운 다른 지점을 두고 일부러 서곡점까지 왔다는 관광객까지... 똑같은 간판을 달고 같은 메뉴를 판매해도 남노갈비 서곡점이 맛집일 수밖에 없는 이유, 이미 손님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가진것을 이웃과 나누는 기쁨

박승택 대표가 음식만큼이나 진심인 게 또 하나 있다. 바로 봉사와 나눔이다. 봉사와 인연을 맺은 건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이다. 우연히 전주 덕진공원에서 취약 계층을 위한 음식 나눔 봉사에 참여했다. 그때 박 대표는 이 시대에 아직도 식사한 끼 제대로 못 먹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저희 집도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았어요. 제가 너무 어릴 때라 기억이 나지 않지만, 쌀이 떨어져 어머니가 옆집에서 밥을 얻어오곤 했다더라고요. 그런 배고픔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서 처음 봉사 활동을 했을 때 너무 놀랐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무관심했고, 몰랐던 것 같아요.”

이후 중식 요리사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모임에 참여하며 본격적으로 봉사의 길에 나섰다. 1년에 한번 전주에 사는 취약 계층 어르신 500명에게 드릴 중식 요리를 만드는 봉사였다. 봉사를 이어오던 중 문득 정작 주변 이웃들을 챙기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자신의 가게에서 1년에 두 번 식사 대접 행사를 열었다.

“남노갈비를 운영한 이후에도 몇 번 행사를 열었는데, 요 몇 년 사이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어르신을 모시는 게 조심스럽더라고요. 지난해 여름 오랜만에 식사 대접을 했는데 감회가 새로웠어요.”

하루 매출을 포기하고 식사 대접을 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을 터. 행사 날에는 일반 손님을 받지 않는 탓에 불멘소리를 듣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그럼에도 박 대표는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 모든 걸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오랜 시간 봉사 활동에 매진해왔지만, 사랑의열매와 인연은 좀처럼 닿지 않았다. 어느 날 다른 가게 앞에 붙어 있는 착한가게 현판을 보고 직접 알아보던 끝에 전북 사랑의열매로 연결되며 마침내 2020년 착한가게에 가입하게 됐다. “착한가게 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라서 (가입을) 못 했죠. 알았으면 더 일찍 했을 텐데...”라며 짝은 아쉬움을 내비쳤다. 박 대표는 혹시라도 자신처럼 몰라서 가입 못 하는 이들이 없도록 주변에 착한가게를 알리고 있다. 열정적인 홍보 덕분에 주변 지인들이 하나둘 착한가게에 가입하는 등 박승택 대표만의 선한 영향력을 널리 전파하는 중이다. ♡



1 물갈비를 먹은 후 볶음밥은 필수다. 특히 박 대표의 볶음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맛있다.
2 남노갈비 서곡점 외관
3 박 대표는 지난해 여름 오랜만에 어르신을 모시고 식사 대접 행사를 열었다.

우리 피부와 바다를 지키는

자외선 차단제 고르는 법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바다를 즐기기 위해 피서객이 몰리고 있다. 바다에 몸을 담그기 전 강렬한 태양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는 이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무심코 바른 자외선 차단제가 해양 생태계에 큰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는 사실. 글 이선희 참고 자료 해양수산부, 환경운동연합



산호초를 죽이는 자외선 차단제

산호초는 어류, 연체동물 등 해양 생물 25% 이상의 서식처를 제공한다. 또 어장과 해안을 보호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해양 생태계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산호초의 표면이 하얗게 변하며 죽어가는 백화 현상이 목격되고 있다. 그 원인으로 자외선 차단제가 지목됐다. 정확히 말하면 유기 자외선 차단제의 주성분인 옥시벤존과 옥티녹세이트가 문제로 지적

됐다. 이 화학물질이 바다에 흘러가면 산호 몸 안에서 독성 물질로 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부 건강을 생각한다면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다. 따라서 자외선 차단제를 고를 때 몇 가지만 기억한다면 나와 바다를 모두 지킬 수 있다. ❀

자외선 차단제 구입 전 꼭 기억하세요

○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 선택하기

자외선 차단제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유기 자외선 차단제는 화학적으로 차단하는 것으로 옥시벤존, 옥티녹세이트가 포함되어 있다. 반면 무기 자외선 차단제는 물리적으로 피부에 보호막을 만들어 자외선을 차단해준다. 따라서 무기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논나노(non-nano) 제품인지 확인할 것

무기 자외선 차단제여도 모두 안심할 수 없다. 만약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나노 단위 입자가 들어 있다면 산호는 물론 사람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 우리 피부에 흡수되거나 흡입하게 되면 혈관은 물론 신경계와 뇌에도 침투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나노 단위 입자가 포함되지 않은 논나노(non-nano)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 향 성분 꼼꼼하게 살펴보기

화장품에 함유된 향료 물질은 접촉피부염, 알레르기 등 각종 피부 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선크림에 향료 성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성분이 식약처에서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 향료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자외선 차단제에는 특히 리모넨과 리날로올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니 주의 깊게 봐야 한다.

○ 리프 세이프(reef safe) 기억하기

자외선 차단제의 성분표를 확인하는 게 가장 좋지만, 어렵다면 리프 세이프(reef safe, 산호초에 유해하지 않다는 뜻)라고 적힌 제품을 사용한다. 최근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장에서 리프 세이프 또는 옥시벤존 프리와 옥티녹세이트 프리 제품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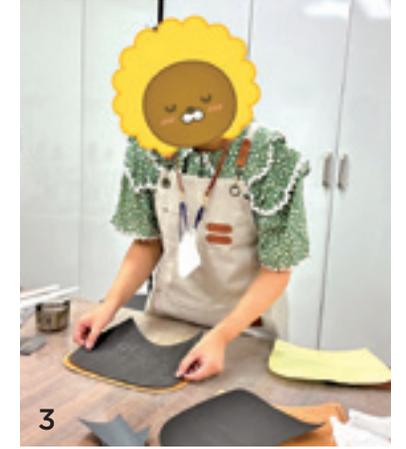
배움으로 만드는 내일의 희망

사람은 세상에 홀로서기까지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으며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다. 하지만 누구나 그런 여건을 갖춘 것은 아니다. 그래서 사랑의열매는 전국 나눔 협력 기관과 다양한 교육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글 이선희 사진각나눔 기관 일러스트 미세스손그림



여성 한부모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 역량 강화 지원 사업 내일(job)을 더 새롭게



1,2,3,4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적성과 역량에 맞춰 다양한 자격 과정을 지원한다. (번호 순대로) 바리스타, 플로리스트, 가죽공예, 드론 전문가 과정에 참여 중인 여성 한부모들



▶ 여성 한부모는 대부분 홀로 아이를 양육하면서 열악한 경제 상황, 낮은 소득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 자녀를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직업군은 한정적이고, 취업을 하더라도 경제활동을 안정적으로 하는 게 쉽지 않다. 이에 동방사회복지회는 신한금융그룹의 후원과 사랑의열매 지원으로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기존 획일화된 직업교육에서 벗어나 개인의 적성과 역량에 맞는 자격 과정을 지원하며, 자격증 취득을 넘어 취업 또는 창업할 수 있도록 심화 및 역량 강화 과정까지 이루어진다. 또한 전문성 향상에 도움 되는 사업장과 연계해 인턴 실습을 하며 실질적 역량 강화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MINI INTERVIEW



동방사회복지회 복지사업부 박현주 팀장

Q **현재 사업은 어디까지 진행되었나요?** 개별 맞춤형 직업교육은 30명 정원에 26명이 교육을 받고 있어 86.6% 달성했습니다. 인턴 실습은 5명이 참여 중이며, 8월부터 3명이 합류할 예정입니다. 7월부터 여성 한부모 가정의 안정적인 재무관리를 위한 가정경제 멘토링도 시작해 개별 관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Q **신한금융그룹과 사랑의열매의 지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출생으로 인구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여성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엄마의 건강한 자립이 중요합니다. 사회문제를 공감하고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기업과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익 기금 단체가 주도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방글라데시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직업교육 및 취업 프로그램



▶ 방글라데시 슬럼가 아이들은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위험한 근로 환경에 노출되거나 집에서 동생을 돌보는 등 방임 상태에 놓인 경우가 많다. 이에 아드라코리아는 나눔과꿈 사업에 선정돼 2022년부터 밀 풀 슬럼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아드라코리아에서 국내 뷰티 계열 다양한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 지원 및 자문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방글라데시 현지의 선호도를 고려해 미용(메이크업, 네일 아트, 헤어 커트) 기술 교육을 시행하게 됐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해 실질적으로 자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1차 연도 교육생 50명 중 37명이 교육을 수료했고, 35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 1 미용 직업훈련 실습 중인 참여자들
- 2 학교 밖 청소년들의 미용 교육을 진행하는 현지 센터 앞에서 담당자들 모습



배운 내용을 토대로 미용 실습 중인 참여자

MINI INTERVIEW



아드라코리아 마주현 담당자

- Q 올해 2차 연도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나요? 취업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취업생을 정기적으로 상담하고 있으며, 퇴사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재취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1차 연도 수료생을 대상으로 고급 과정을 제공, 이들의 미용 기술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전문 인력 또는 지도자로 양성하고자 합니다.
- Q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있다면요? 교육생, 특히 취업생이 안전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용실 원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적절한 근무시간과 최소 급여 수준 등을 정한 근로 기준표를 작성해 각 미용실이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지역 내 건전한 미용 시장 취업 환경을 조성해 취업생의 근로 여건이 개선되고 역량 있는 인력이 꾸준히 배출됨으로써 미용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 Q 기존 지원 사업과 비교해 차별화된 부분은 무엇인가요? 전 세계 한류 문화 열풍에 따라 K-뷰티를 사업에 접목함으로써 교육생들이 현지 미용 시장에서 차별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기획했습니다. 한 예로, 한국의 삼육보건대학교 뷰티융합과와 협력해 현지에 한국 미용 전문 인력을 파견해 미용 이론과 실습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향후 K-뷰티 트렌드를 소개하는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등 K-뷰티를 접목해 현지 양성 인력의 기술 역량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자립준비청년지원사업 NEW해피스타트



▶ 보호 종료 청년의 자립 준비를 돕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에 취업난, 주거 불안 등 그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고 힘든 상황이다. 이에 (사)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는 (주)GS리테일의 후원과 사랑의열매 지원으로 보호 종료 청년을 위한 자립 준비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비전지원금을 지원해 진로(최소 60% 사용)와 생활(최대 40% 사용) 부분에 계획적이고 규모 있게 사용하도록 했다. 또 GS리테일의 사업 분야인 온·오프라인 유통업을 반영한 진로 특강 및 진로 멘토링을 지원함으로써 유통업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활동 미션을 통해 자료 수집, 커뮤니케이션, 문서 작성 능력 향상, 팀원과의 역할 분담 및 협력을 경험하도록 했다.

자립 준비 청년들과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한 멘토 브라더스키퍼 김성민 대표의 특강 모습



진로 특강에 나선 GS리테일 조직문화서비스팀 김시연 사회공헌 파트장

MINI INTERVIEW



(사)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CSR1팀 김하얀 과장

- Q **가장 큰 사업 성과를 꼽는다면요?** 자립 준비 청년들이 진로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고, 자립 의지를 다시금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후배 자립 준비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선배가 되어야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입니다.
- Q **기존 사업과 어떻게 차별화했나요?** 개인 역량 강화는 물론 성취감과 협력의 중요성을 느끼도록 자립 준비 청년들이 프로그램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기획했습니다. 유통 분야의 기업 방문, 임직원 특강 참여, 임직원과의 소통 등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경험을 제공한 점과 그 경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도록 한 것이 다른 사업과의 차별점이라 생각합니다.
- Q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가요?** 자립 준비 청년들의 사회적·경제적 자립 지원 및 유통업 취업 준비를 위한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비전지원금 중 진로 지원에 대한 사용 계획을 세울 때 청년과 소통하며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임직원 특강 및 멘토링 시간에는 유통업 선배들에게 현실적 조언을 듣고 정서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운영했습니다. 특히 자립 준비 청년 출신의 멘토가 재무 멘토링을 진행하며 참여자들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도록 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자기 주도적 미래 설계를 위한 법 교육 및 진로 교육' 진행하는 청소년희망재단

“건강한 사회인으로 우뚝 성장합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건문을 넓히고, 롤모델을 만난다.
하고 싶은 일이 생기고, 닳고 싶은 어른이 보인다.
아이들이 배우는 건 꿈이고 희망이다. 글 강은진 사진 서범세

청소년희망재단이 운영하는 청소년희망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들.
젬베 수업 중 강사 선생님(뒷줄 가운데)과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학교안과밖, 경계의아이들

장맛비가 한창이던 지난 7월의 어느 날,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청소년희망재단을
찾았다. 제법 굵은 빗줄기에 빗소리가
요란했는데도 재단 정문을 열자 어디선가
'쿵쿵탁 쿵쿵탁' 박자에 맞춰 북 치는 소리가
크게 들려왔다. 재단 건물 지하 1층 다목적
음악실에서 진행되는 서아프리카의 전통 북
젬베(djembe) 수업이었다. 아이들은 삼삼오오
모여 악보를 보며 북을 치거나 선생님에게
질문하고, 서로 틀린 박자를 지적하며 웃느라
여념이 없었다. 수업을 지켜보던 중 한 가지
눈에 들어오는 점이 있었다. 바로 아이들의

법 체험 활동으로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솔로몬로파크를
방문한 위기 청소년들



복장이었다. 자유롭게 사복을 입은 아이들도
있었지만, 교복을 입은 아이들의 경우 학교에
따라 디자인이 달랐다. 학교 안도, 그렇다고 밖도
아닌 그 경계에서 있는 아이들이다.
청소년희망재단은 법무부 산하의 청소년
보호 전문 기관이다. 1999년 12월부터
'자녀안심운동 서울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청소년 보호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2006년부터
청소년희망재단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비행 청소년들의 재활과 교육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다시금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입법부 국회 체험을
통해 법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그중 세아그룹과
사랑의열매가 지원하는 '아동·청소년의 자기
주도적 미래 설계를 위한 법 교육 및 진로 교육'
사업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다문화
가정이나 학교 밖 청소년, 시설 아동·청소년
등 비교적 잘 알려진 분야가 아닌,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는 일탈 위험 청소년과 학교
부적응 청소년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 복지 이슈에서 전혀
주목받지 못하던 사각지대 청소년을 발굴한
점이 높게 평가받는다.

다양한 교육 통해 재활 기회 제공

경계의 아이들이란 위법 행동으로 인해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의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서울가정법원의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 교칙 위반이나 등교 거부 및 기타
문제 행동 등으로 인한 학교 부적응 청소년을
일컫는다. 이들은 본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처분에 따라 제3의 기관에서 상담 및 교육
등을 받거나 대안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 청소년희망재단은 자체 대안학교



일본의 진로 교육기관
탐방 등 해외 연수
경험을 통해 아이들은
견문을 넓히고,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설계한다. 사진은 일본
어학원 방문 모습

‘청소년희망학교(이하 희망학교)’에서 이들 청소년들을 위해 고등학교 과정을 위탁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집중적인 법 교육 및 법 체험 활동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법질서 준수의 필요성을 깨닫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있다. 또한 다양한 진로 교육을 통해 스스로 변화하고자 하는 재활의 계기도 마련해주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자기 주도적 미래 설계를 위한 법 교육 및 진로 교육 사업은 크게 법 교육, 법 체험 활동, 진로 교육, 직업 탐방 및 진로

교육 기관 탐방 등으로 구성한다. 전문 강사가 진행하는 법 교육은 일탈 위험이 있는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지역아동센터의 신청을 받아 ‘찾아가는 법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여기에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솔로몬로파크를 방문해 법 퀴즈 대회 등 다양한 체험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잼베, 난타 등 음악 수업과 바리스타 수업 등 진로 교육은 아이들의 자존감을 회복함은 물론 구체적인 미래 설계의 발판이 되어준다.

음악 수업은 소규모 공연까지 개최하며 무대 위에서 주목받는 경험을 제공한다. 또 바리스타 수업은 체험 수준이 아닌 응시생의 40% 이상이 자격증을 취득할 정도로 현장 중심적이다. 아이들은 진로 교육을 통해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

사회적 관심 절실해

가장 인상적인 프로그램은 진로 교육기관 탐방이다. 청소년희망재단 아이들은 제2외국어로 일본어를 배우고 있으며, 원하는 아이에 한해 일부 비용을 지원받아 일본 연수

직업교육 중
하나인 바리스타
수업. 참여
학생의 40%
이상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다.



기회를 제공한다. 오사카, 고베 등 일본 현지 전문학교와 어학원 등을 방문해 취업 및 진학 정보를 제공받는다. 일본 연수를 통해 아이들 대부분은 생애 첫 해외 경험을 하고, 견문을 넓히며, 미래에 대한 긍정적 동기를 부여받는 것으로 알려진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가정법원, 서울시교육청 등에서 의뢰한 위기 청소년 대부분은 결손가정이거나 부모의 직업이 불안정해 제대로 양육받지 못하는 등 경제 및 사회심리적 환경이 열악해 복지 차원에서 보다 큰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세아그룹과 사랑의열매가 지원하는

아동·청소년의 자기 주도적 미래 설계를 위한 법 교육 및 진로 교육 사업은 위법 행위에 연루된 청소년들의 일탈 행동 및 재범 예방에 큰 도움을 주며, 재비행 예방 효과로 인한 사회적 비용까지 절감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다양한 욕구와 잠재적 가능성을 지닌 청소년들의 취업과 연계한 진로 교육과 직업 체험을 통해 재능을 발견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일탈 위험 아이들의 성공적 재활은 스스로의 변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가정과 학교에서 외면당한 이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가능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는 분명 사회의 몫이다. ♣

SPECIAL INTERVIEW

“지원의 사각지대 아이들, 큰 관심 필요해”



청소년희망재단 김호성 팀장

교육부 인정 정규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 교실 안에서 크고 작은 일이 많이 일어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이 스스로에게 가지는 깊은 낙인이다.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잔뜩 위축돼 패배감과 열등감이 생각보다 크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다. 어른들은 열심히 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아이들은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열심히 해야 할지 모른다.

아이들의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교실로 올라오는 계단에 후원해주고 있는 곳들을 크게 써 놓았다. 거기엔 아동·청소년의 자기 주도적 미래 설계를 위한 법 교육 및 진로 교육 사업을 지원해주고 있는 세아그룹과 사랑의열매도 있다.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명한 곳에서 신경 써 주고 있음을 이야기해준다. 또 재단 직원도 보다 단정한 옷차림에 신경 쓰고, 강사 선생님들의 화려한 경력을 일부러 강조하기도 한

다. 일반 학교와 비교해 자신들이 안 좋은 곳에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 시기 아이들에겐 무척 예민한 문제다.

학생들의 긍정적 변화 사례가 궁금하다. 학교 폭력 피해 학생으로 우리 재단으로 오게 됐다. 처음엔 굉장히 소극적이었는데, 이곳에서 일본어 공부에 재미를 붙여 졸업할 때는 일본어능력시험 3급을 따고, 성적은 조금 부족했지만 일본어 면접을 잘 봐서 지방에 있는 한 대학에 입학했다. 이런 긍정적 경험이 계속 동력이 돼 일본어 연수도 다녀오고, 영어와 중국어에도 도전해 지금은 우리나라 유명 호텔의 호텔리어가 됐다.

세아그룹과 사랑의열매 지원으로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모든 게 달라졌다. 정규 수업도, 진로 교육도, 제2외국어 활동이나 해외 연수 등도 세아그룹과 사랑의열매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처벌받은 학생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현장 선생님으로서 당부하고 싶은 게 있나? 보다 큰 관심이다. 다문화 가정이나 학교 밖 아이들 등 사회적 약자로 알려진 분야는 큰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학교 안 처벌받은 아이들은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지원이나 관심은커녕 따가운 시선까지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다. 뉴스에 나오는 진짜 범죄 청소년은 극히 일부다. 완벽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이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나눔의 힘을 믿습니다”

강원 아너 17호인 김종태 대표는 '웨딩업계 큰손'으로 불린다. 사업 규모 때문만은 아니다. 예식 폐단을 바로잡고, 팬데믹 상황에서도 손해를 감수하며 예비부부 편에 섰기 때문이다. '원주를 대표하는 웨딩홀'이라는 명예로운 수식은 허명이 아니다. 글강보라 사진장은주

김종태 대표가 운영하는 웨딩홀 빌라 드 아모르(Villa De Amor)는 이탈리아어로 사랑의 저택을 의미한다. 저택이라는 명칭에 걸맞은 최대 규모와 최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예비부부들에게 사랑받는 곳이다. 하지만 이곳의 진정한 매력은 나눔에 있다. 김종태 아너는 다양한 나눔으로 끝없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진정한 빌라 드 아모르를 완성하고 있다.

나눔과 기부로 만드는 평등한 출발선

김종태 대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눔 키워드는 '평등'이다. 특히 학생을 지원하는 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학생들에게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진리가 실현되었으면 합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출발선이 다르다는 좌절을 경험하게 해서는 안 되니까요. 장학금 지원으로 열심히 살

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고 싶습니다.”

퇴학·자퇴·미진학 등의 이유로 제도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관심도 높다. 어린 시절 잠깐의 방황과 어려움이 이후의 삶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의 나눔 실천은 인생의 멘토였던 후원자로부터 시작되었다. 어려운 학창 시절 장학금을 지원하며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후원자는 “성공해서 꼭 보답하겠다”는 김종태 대표에게 “잘 자라서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보답”이라고 말했다. 그 말은 큰 울림을 주었고, 꼭 지키고 싶은 삶의 지표가 되었다. 이런 따뜻한 도움 덕분에 김종태 대표는 배움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성공한 사업가의 꿈을 이룰 수 있었다. 원주에 터를 잡은 이후 매년 원주 지역 초·중학교에 장학금 기부를 이어가며 명절마다 심향영육아원 원생을 초청해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어린 시절 나눔에 대한 보답이다. 그의 나눔은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며 좀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게 만든다. 그렇게 디딤돌을 딛고 일어난 아이들이 또 다른 나눔 씨앗을 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정직과 존중으로 한국의 예식문화를 바꾸다

겉으로는 부드럽고 순하지만 속은 굳센 외유내강(外柔內剛)은 김종태 대표에게 잘 어울리는 말이다. 그는 예식업계의 오랜 폐단인 '상폐기'를 근절하는 강단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강원 17호 아너
빌라 드 아모르 김종태 대표



“사랑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양분이죠. 이웃사랑을 나눔으로 체감할 수 있다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상폐기는 식사 인원과 상관없이 4명 기준을 한 상으로 식대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2명이 먹더라도 4명의 식대를 지불해야 했다. 혼주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구조였지만,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지속되어왔다. 김종태 대표는 이런 폐단에 과감하게 'NO!'를 선언하며 식권제를 도입했다. 갈비탕 대신 뷔페 시스템으로 변경하며 인당 결제로 바꾼 것이다. 동종 업계의 원성과 반발이 거셌지만, 강한 독심과 결단으로 과거의 악습을 근절할 수 있었다. 웨딩업계의 직격탄이 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김종태 대표만의 정직과 존중은 꺾이지 않았다. 당시 거리 두기로 인한 사적 모임을 제한해 웨딩업계에는 계약 분쟁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었다. 신랑·신부가 확진되는 경우도 있었고, 최소 보증 인원을 채우지 못해 위약금을 지불하는 상황도 속출했다. 정부에서는 20% 위약금 감정을 독려했지만, 빌라 드 아모르에서는 자발적으로 50% 감정을 적용했다. “사업에서도 역지사지해야죠. 인생의 새 출발인데, 식도 제대로 올리지 못하는 마음이 어떨겠어요. 누군가를 속상하게 해서 번 돈을 주머니에 넣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잠깐의 이득이 될지는 몰라도 멀리 내다보면 손해입니다.” 고통 분담 차원에서 시행한 일이라고 겸손하게 말했지만,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

다. 장기 팬데믹 상황에서 단 한 명의 인원 감축 없이 직원과 고객 모두를 끌어안았다. 김종태 대표는 옳다고 여기는 일에는 더없이 강하고, 사회적 약자에게는 한없이 부드럽게 대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외유내강이라는 수식이 잘 어울리는 것이다.

더불어 함께 사는 나눔 정신을 유산으로

강원 지역 나눔명문기업 1호는 김종태 대표가 운영하는 빌라 드 아모르 웨딩이다. 유수 기업을 제치고 나눔명문기업 1호를 기록했다는 것은 나눔에 얼마나 진심이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강원 아너 17호이자 강원 아너 대표로 활동하는 김종태 대표는 더불어 함께 사는 나눔 정신을 유산으로 남기고 싶다고 말한다. 두 자녀에게 삶을 대하는 진지한 자세와 변치 않는 명예를 대물림하고 싶은 마음이다.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방송 진행자, 심리학자인 필 맥그로(Phil McGraw)는 <위대한 가족을 만드는 7가지 원칙>이라는 책에서 ‘식구가 넷이라면 가족은 넷이 아니라 다섯 사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다섯 번째 가족은 4명의 성격을 하나로 만드는 가풍으로, 삶을 대하는 부모의 모습이 한 집안의 정신적 대물림인 가풍과 가훈이 된다고 말했죠. 저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가풍으로 ‘존경받는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인생의 동반자인 아내 권영옥 씨는 김종태 대표가 가장 신뢰하는 나눔 파트너다. 그의 손큰 나눔 뒤에는 아내의 든든한 지원이 자리한다. 김종태·권영옥 부부의 행보가 남다른 것은 기부의 틀을 깨는 생각 때문이다.



“기부는 내 것을 내놓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있던 것을 잠시 맡아두었다가 다시 돌려주는 일이지요. 돈을 번 만큼 사회에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기에 의미 있고 값진 삶은 나눔으로 완성되지요.” 김종태 대표는 이를 위해 패밀리 아너를 계획하며 가족 모두를 나눔의 세계로 이끌고 싶은

바람을 가지고 있다. 부를 움켜쥐는 손보다 어려운 이웃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삶을 바라기 때문이다.

사랑의저택에서 사랑의 열매를 수확하다

김종태 대표는 나눔을 실천할 때도 남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발견한다. 제도권 바깥에서 소외되는 사람들까지 챙기는 결이 고운 사람이다. 빌라 드 아모르에서 열리는 ‘소방관을 위한 음악회’나 ‘지역 사회복지사 초청 디너’ 등의 이벤트도 그의 섬세한 마음에서 시작한 것이다. “소방관이나 사회복지사는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분들이죠. 어려운 현장에서 고생하는 천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인사를 직접 전하고 싶었고, 그날 하루만큼은 마음 편히 쉬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하곤 합니다.” 그의 봉사는 이웃집 천사들을 위해 빌라 드 아모르를 천국으로 만드는 일이다. 사랑이 넘치는 저택에서 음악과 함께 즐기는 맛있는 음식은 이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준다. 직업으로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일이지만 “당신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하며 고마움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 보람찬 내일을 열어갈 수 있게 만든다. 그렇게 생긴 자긍심은 직업인으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전해준다.

이처럼 나눔과 봉사의 바탕이 되는 빌라 드 아모르에서는 날마다 탐스러운 사랑의 열매가 열린다. 빌라 드 아모르가 예비부부에게 사랑받는 웨딩홀로 자리 잡은 것도 그 때문이다. 가족과 이웃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저택이기에 백년해로를 서약하는 데 가장 적합한 장소가 된다. 김종태 대표의 따뜻한 사랑이 빌라 드 아모르를 최고 웨딩홀로 완성하는 셈이다. 🍀

“나눔을 수확하는 예산 매실 아저씨를 아시나요?”

연말이면 전해지는 각 지역 키다리 아저씨의 나눔들! 이번 여름에는 푸르른 매실 아저씨의 미담이 저 멀리 예산에서 들려왔다. 주렁주렁 나눔의 열매가 가득한 소식이다. 글강은진 사진서범세

37년공직생활, 나눔 실천해

지난 7월, 충남 사랑의열매 사무실에서 (주)천마기술단 박영산 부사장의 ‘일상회복 착!착!착! 나눔캠페인’ 성금 전달식이 있었다. 박 부사장은 직접 수확한 매실을 판매한 수익금 50만 원을 지역 사회 저소득 가정을 위해 기부했다. 인상이 푸근한 박 부사장은 예산군청 산업건설국장을 마지막으로 37년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막 인생 2막을 시작하는 참이었다. 아직은 부사장이라는 호칭이 낯설다는 그는 사실 ‘매실 아저씨’라는 별칭으로 예산 지역사회에서 유명 인사다. 공



직 생활 중에도 2008년부터 나눔을 위해 직접 매실 농사를 짓고, 그 수익금을 충남 사랑의열매에 매년 기부해 왔기 때문이다. 취미로 하는 농사가 얼마나 될까 싶지만, 박 부사장의 매실밭은 900여 평에 달했다. 왜 매실이나는 질문엔 당시 매실값이 좋았다며 부끄러운 듯 웃었다. 그의 기부 누적 금액은 600여만 원에 달한다.

“공직에 있으니 사랑의열매는 친숙한 기관이었죠. 뭐라도 동참하고 싶었는데... 제 첫 봉금이 17만 3,500원이었어요. 공무원 월급으로 4남매 키우며 사는 일이 빠듯하니 나눔이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더 부지런히 움직이는 수밖에요.”

이웃 위한 사랑의매실

누구보다 청렴한 공직자였던 박영산 부사장은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왔다. 특히 한 가정의 가장으로, 지역사회의 좋은 이웃으로 자신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매실 농사에 앞서 미꾸라지를 잡아 장에 내다 팔기도 했다. 주위에선 편하게 살라고 말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나눔의 열정이 들끓고 있었다. 평생 자신을 도와 새벽같이 일어나 함께 강에 나가고 밭에 나가준 아내에 대한 고마운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다.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집에 온 배고픈 이에게 밥을 준 적이 있어요. 부모님은 쌀을 빌리고 품앗이로 갚아나갈 정도로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저를 나무라지 않으셨죠. 그때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



매실 농사로 이웃사랑 실천하고 있는 (주)천마기술단 박영산 부사장

37년 공직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나눔 인생을 시작한 박영산 부사장

다는 마음이 제 가슴 깊이 자리 잡은 것 같아요.”
 박영산 부사장의 이웃을 위한 사랑의 매실 농사는 알음알음 입소문을 타고 있다. 한 비료 회사에서는 비료를 후원해주기도 했다. 나눔에 동참하고 싶어 매실을 구입하겠다고 하니 불까지 빨개지며 손사래를 친다. 그러더니 얼마든지 와서 따 가라고, 1만 원이고 2만 원이고 주면 전부 대신 기부해주겠다고 말한다.
 “큰돈을 기부한 것도 아니어서 부끄럽지만 해요. 하지만 누군가에게 보탬이 된다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너무 뿌듯해요. 그래서 오늘도 매실밭에 가요.”
 빨간 사랑의열매에 버금가는 초록빛 사랑의 매실, 박영산 부사장의 나눔을 기대해본다. ♡

제11회 사랑의열매 나눔공모전

“너의 나눔 이야기를 들려줄래?”

드디어 전국 최대 규모의 아동·청소년 대상 ‘사랑의열매 공모전’이 시작됐다. 올해 공모전은 눈에 띄는 큰 변화가 있다는 사실, 특히 굿즈 디자인 부문을 신설해 벌써부터 많은 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클이선희 사진사랑의열매

올해 공모 주제: 나에게 도움이 되는 나눔

- 1 내가 생각하는 나눔이란? 2 나눔에 대한 자유로운 표현하기
- 3 학교(일상)생활 속 다양한 나눔 실천 방법 소개 4 환경과 어울려 사는 나눔 이야기

부문별 주제

글(시, 산문)

- 내가 생각하는 나눔이란?(시/산문) ○ 직접 체험 혹은 실천한 나눔 경험 이야기

그림(손 그림, 포스터, 일러스트)

- 나눔 실천을 잘 표현하고 함축할 수 있는 이미지

굿즈 디자인

- 사랑의열매 캐릭터 열매동이를 활용한 굿즈 디자인
- 실용적이고 독창적이며 실현 가능성이 높은 디자인 * 개인 참가만 가능

응모 방법

온라인 접수 사랑의열매 나눔공모전 홈페이지(www.spectory.net/chest/love) 접속 → 접수하기

우편 접수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185, 4층 사랑의열매 나눔공모전 운영사무국

* 단체 참가 접수는 우편을 통해 접수 가능(사랑의열매 나눔공모전 홈페이지 접속 → 공모 요강 하단에서 단체 접수 양식 다운로드 → 작성한 후 우편으로 동봉)

응모 일정

접수 기간 2023년 7월 4일~8월 31일 **수상자 발표 및 시상식** 2023년 11월 중 진행 예정

궁금한 게 있다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사랑의열매 나눔공모전 운영사무국

- 전화 문의 02-6953-1410(운영 시간: 월~금요일 09:30~18:30, 주말·공휴일 제외)
- 온라인 문의 chest@contestweb.net

지난해 수상자에게 듣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나눔공모전 이야기



제10회 나눔공모전 교육부장관상 수상(중등 부문 이미지 분야)

강원예술고등학교 1학년 정은유

Q 나눔공모전에 출품한 작품은 어떻게 만들었나요?

친구 중 머리를 길게 기른 남자애가 있었어요. 언젠가 머리를 짧게 잘라서 이유를 물었더니 머리카락을 기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인상적이어서 그림에 담고 싶었습니다. “나눔은 행복이다”라는 말로 끝맺으려고 했는데, 행복보다는 기쁨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눔은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기쁘니까요.

Q 올해 공모전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조언을 한다면요?

무조건 심사위원 눈에 띄려고 남들이 하지 않는 주제를 다루는 건 피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내가 느낀 감정은 그림과 글에 녹아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부담은 내려놓고 과정을 즐기면서 최선을 다한다면 심사위원들에게도 전 해질 것입니다.



제10회 나눔공모전 나눔교육 지도교사상 수상(교육부장관상)

인제고등학교 교사 송광석

Q 어떻게 나눔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요?

사실 나눔교육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반 학생들과 1년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전국 대회에서 1등을 하며 상금을 받았 습니다. 상금은 학생들과 협의해 사랑의열매에 기부했구요. 그때 반 학생들과 제가 뿌듯함을 많이 느낀 기억이 납니다. 그 일을 계기로 나눔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Q 나눔교육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나눔 활동을 계획하고 진행하며 수행 완료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것이 많기 때문에 활동의 중심은 학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Q 나눔교육 시작을 고민하는 선생님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나눔교육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각자 위치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나눔교육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



1

더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힘

이번 행사에서 좀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나눔명문기업의 다양한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먼저 가입해 오랫동안 나눔을 실천해온 (주)중앙엔지니어링과 수정안과의원에 시장표창을 수여했다. (주)중앙엔지니어링과 수정안과의원은 장학 지원 사업 및 취약 계층을 위한 다양한 물적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에 크게 이바지한 점을 인정받아 시장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다. 또한 15개소 나눔명문기업 기부금 중 1억 3,000만 원은 행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23 부산세계장애인대회에 전달해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었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부산이 나눔 대표 도시로 자리매김한 것은 포용하고 배려하는 부산만의 특별한 지역 문화가 만든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부산 나눔명문기업의 따뜻한 마음에 뜨거운 성원을 부탁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

- 1 15개 기업이 함께한 부산 나눔명문기업 공동 가입식 현장
- 2 나눔명문기업 15곳 공동 가입을 2년 연속 달성한 부산 사랑의열매
- 3 공동 가입식은 7월 14일 부산광역시청에서 진행했다.

나눔명문기업 공동 가입한 15곳

부산 나눔명문기업

- 제49호 주택도시보증공사(유병태 사장)
- 제51호 (주)대성문(채창호 대표이사)
- 제52호 (주)시티캡(정현돈 대표이사)
- 제53호 한라MS(주)(김영구 대표이사)
- 제54호 (주)마이텍(박말용 대표이사)
- 제55호 (주)에스피시스템스(심상균 회장)
- 제56호 (주)보문(이상규 대표이사)
- 제57호 (주)용성개발(김성열 대표이사)
- 제58호 (주)짐모아(심재천 대표이사)
- 제59호 (주)조은E&T(김석조 대표이사)
- 제60호 (주)DW국제물류센터(신한춘 회장)
- 제61호 (주)아이제이동수(김태식 대표이사)
- 제62호 (주)금양(류광지 회장)
- 제63호 (주)영남이엔지(박무열 회장)
- 제64호 (주)비엠아이(이민규 대표이사)

부산 15개 기업 공동 가입

나눔의 바람을 일으킨 나눔명문기업

부산의 15개 기업이 나눔명문기업에 공동으로 가입해 화제다. 특히 부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나눔명문기업 최대 규모 가입이라는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유지하게 됐다. 글 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나눔의 뜻을 모은 부산기업인들

지난 7월 14일 부산 사랑의열매는 부산광역시청에서 15개 기업의 나눔명문기업 공동 가입식을 진행했다. 이번 공동 가입식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부산 시민을 응원하고자 부산경영자총협회의 심상균 회장이 부산 사랑의열매에 제안하며 성사됐다. 나눔명문기업 공동 가입식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부산 사랑의열매 최금식 회장을 비롯해 심상균 부산경영자총협회장 등 기업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특히 부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5곳이 공동 가입하며 2년 연속 전국 최대 규모 가입이라는 대기록을 남겼다. 가입식에서 최금식 회장은 “전국 최고·최대 나눔명문기업이 탄생한 부산이 더욱 따뜻한 나눔명문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랑의열매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2



3

“나눔이야말로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힘인데, 많은 기업이 함께하기에 부산이 더욱 건강하고 올바른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나눔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 부산경영자총협회 심상균 회장(주)에스피시스템스 회장

이동노동자를 위한 생수나눔 캠페인

“폭염 속 시원하고 안전한 작은 휴식”

전 세계적으로 폭염에 시달리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전국이 찜찜 끓는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야외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 이에 사랑의열매와 여러 기관이 협업해 이동노동자를 위한 생수나눔 캠페인을 진행했다. 글 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총 10만 개의 생수를 서울시립 및 구립 노동센터 등 24곳에서 제공했다. 체내 수분을 보충하고 잠시나마 휴식을 취해 온열 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한 것. 특히 올해는 3년 차에 접어든 만큼 그동안의 사회적 호응에 힘입어 캠페인을 한층 확대했다. 단순히 얼음물을 나누어주는 것이 아닌 기후 변화에 따른 폭염기 대비 이동노동자의 안전한 업무 환경을 지원하는 데까지 범위를 넓힌 것. 그 일환으로 6월 16일 서울시 청계천 장통교에서 이동노동자 생수나눔의 의미를 시민에게 알리는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당일 현장을 방문한 이동노동자에게는 생수, 여름용 버프, 쿨 키트(토시, 쿨 스카프, 물티슈)와 함께 온열 질환 및 안전사고 예방 수칙 등을 전달했다. 또한 6월 19일부터 7월 23일까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생수나눔 챌린지'도 진행했다. 시민이 택배 기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해 현관에 생수를 놓아둔 사진을 촬영, 해시태그와 함께 본인의 SNS에 올리며 그들을 응원하고자 한 것. 앞으로도 이동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사랑의열매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



이번 캠페인은 무더위 속 야외에서 일하는 배달·택배·퀵·대리 기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해 사랑의열매와 서울특별시, 서울시노동센터협의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주)코리아세븐이 참여하고 롯데칠성음료(주)와 금융산업공익재단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이동노동자를 위해 지난 6월 12일부터

1 6월 16일 서울시 청계천 장통교에서 진행한 거리 캠페인
2 거리 캠페인 현장을 방문한 이동노동자에게는 생수와 쿨 키트 등을 전달했다.
3 이동노동자의 생수나눔 의미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모습



제25회 전국 초·중·고등학생 백일장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해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국에 240만여 명의 초등학생이 동시에 시청하는 <대한민국 1교시>가 KBS 한국방송 1·3라디오를 통해 송출되었다. 이와 함께 제25회 전국 초·중·고등학생 백일장도 열렸다. 글 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제25회 전국 초·중·고등학생 백일장 시상식에 함께한 수상자들

<대한민국 1교시>는 KBS와 교육부 및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가 공동 기획하고, 사랑의열매 후원으로 2005년부터 진행한 장애 인식 개선 특집 방송이다. 올해는 '단짝 친구들'을 제작·송출해 초등학생이 장애에 대한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와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의 날을 맞아 학생들의 장애 이해 공감 문화 형성과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제25회 전국 초·중·고등학생 백일장도 개최했다. 초등학생은 <대한민국 1교시-단짝 친구들> 방송을 시청한 후 방송 소감문을 작성하거나, '어울림으로 만드는 우리 학교'라는 주제로 시·산문·독후감을

을 응모했다. 중·고등학생은 동일한 주제로 시, 산문, 웹툰 부문과 4월 18일 KBS1에서 방송된 청소년 장애 이해 교육 드라마 <갈채>를 시청한 후 방송 소감문을 작성해 응모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총 2만 6,353편이 접수됐고 1,492개교에서 백일장에 참여해 높은 관심과 참여율을 보였다. 대상 수상자 12명을 포함 총 2,129명이 작품상을, 지도 교원 5명과 1개교, 단체상 14개교가 공로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7월 17일 서울여성플라자 아트홀봄에서 진행된 시상식을 마지막으로 제25회 전국 초·중·고등학생 백일장을 마무리했다. 🍓





계족산 맨발축제는 숲속 황톳길을 맨발로 걷고 달리며 예코 힐링의 진수를 체험하는 세계 유일의 축제다.

나눔명문기업 대전 3호 (주)맥키스컴퍼니

문화 예술 후원으로 날마다 아름다운 인생

맥키스컴퍼니는 충청권 대표 소주 '이제우린'과 '선양'으로 유명한 향토 기업이다. 이곳은 지역사회를 위한 CSV(공유 가치 창출) 활동으로 남다른 경영과 독특한 상생을 선보인다. 특히 삶의 보람과 즐거움을 더하는 문화 예술 지원은 지역민의 아름다운 일상을 후원하는 활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글강보라 사진맥키스컴퍼니, 사랑의열매

맥키스컴퍼니는 1973년 충청 지역의 33개 소주 회사가 모여 설립한 금관소주를 모태로 이듬해 1974년 5월 선양주조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한 이후 2013년 (주)맥키스컴퍼니로 이어지며 50년 업력을 자랑하는 주류 전문 기업이다. 맥키스컴퍼니는 이를 맥(脈)과 키스(kiss)의 합성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즐겁게 잇겠다'는 의미와 기업 철학이 담겨 있다. 나눔명문기업 대전 3호로 등재된 맥키스컴퍼니의 사회 공헌 활동은 기업 이익을 단순 배분하는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넘어 공유 가치 창출(Creating Shared Value)인 CSV로 정의할 수 있다. 이익 창출 과정에서 지역의 요구를 수용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CSV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한다. 이런 가치를 인정받아 '2021년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맥키스컴퍼니만의 철학은 기업 이념과 가치를 새기며 우리 사회 곳곳에서 실현되고 있다.

소주 한병에 담긴 '이제우린 지역사랑 장학금'

- 충청인과 희로애락을 함께해온 이제우린은 즐겨 찾는 소주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기업과 소비자가 지역의 인재 육성을 위해 '이제우린 지역사랑 장학캠페인'으로 특별한 동행을 이어가기 때문이다. 소비자와 생산자 공동 기부 프로젝트로 이제우린 소주와 2023년 새로 출시한 선양소주를 구입하면 한 병에 5원씩 적립되는 방식이다. 이제우린과 선양의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지역 인재가 성장하는 것이다. 지역을 위한 가치 소비로 10년간 40억 원을 목표로 하며, 지난 4년간 대전·세종·충남 각 지자체에 기부했거나 기부를 앞둔 장학금 총액이 약 9억 3,900만 원에 이른다. 장학금의 일부는 대전 사랑의열매를 통해 소외 계층 학생들에게 지원했다. 연말에는 이제우린 라벨에서 사랑의열매를 찾아볼 수도 있다. 대전 사랑의열매가 주관하는 '희망나눔캠페인'에 동참하며 소주 라벨에 희망나눔캠페인의 홍보 문구가 새겨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역의 나눔문화 활성화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다.
-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하락으로 어려운 시간도 있었지만, 맥키스컴퍼니를 신뢰하는 지역민들이 있기에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장학금 기부를 이어가겠다는 약속을 굳게 지켰다. 10년 이상 꾸준히 이행하겠다는 장기 목표 역시 지역민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한 의지가 담겨 있다.



- 이제우린과 선양 소주는 한 병당 5원의 장학금을 적립하며 지역 인재를 양성한다.
- 전 국민에게 사랑받는 계족산 맨발축제 모습



충청의 명소, 맨발로 걷는 14.5km 계곡산황톳길

☞ 전국에서 유일하게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계곡산황톳길은 조웅래 회장이 2006년 전국의 질 좋은 황토를 계곡산 임도에 쏟아부으며 조성했다. 계곡산 임도 총 14.5km에 질 좋은 황토 2만여 톤을 투입한 것. 이제우린과 선양 소주의 판매 수익금으로 매년 2,000여 톤의 황토와 10억여 원을 투입하며 유지하고 있다. 지역민의 이제우린 사랑이 평범한 임도를 촉촉한 황톳길로 바꾼 것이다. 여기에 사람들이 함께 걷고 뛰는 행사도 기획했다.

매년 5월이면 계곡산황톳길을 맨발로 걷거나 달리는 '계곡산 맨발축제'를 개최하는데, 가장 사랑 받는 지역 축제로 손꼽히고 있다. 연간 100만 명이 찾아오는 계곡산황톳길은 한국관광 100선에 4회 연속 선정, 한국관광공사에서 뽑은 '5월에 꼭 가볼 만한 곳', 여행 전문 기자들이 선정한 '다시 찾고 싶은 여행지 33선', 한국관광공사 '엔택트 관광지 100선'에 이름을 올리며 충청의 자부심이자 지역민이 사랑하는 힐링 명소로 자리 잡았다. 맥키스컴퍼니의 공유 가치 창출 경영이 새로운 관광 명소를 만들며 주변 상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이다. 환경과 사회·문화·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공유 가치를 새롭게 만들어낸 셈이다.

이제우린, 에코힐링에 문화를 더하다

☞ 계곡산황톳길의 또 다른 명물로는 해마다 열리는 '뽀뽀(funfun)한 클래식'을 꼽을 수 있다. 황톳길 조성 이후 계곡산에서 피아노 연주를 감상하자는 조웅래 회장의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것으로, 실제 피아노를 산으로 옮긴 뽀뽀한 클래식을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일요일 오후 2시 30분에 개최하고 있다. 2007년부터 이어진 '숲속음악회'는 클래식에 뮤지컬, 연극, 개그 요소를 가미해 관객과 함께 참여하며 즐길 수 있는 쌍방향 공연으로 사랑받고 있다.

맥키스컴퍼니는 숲속음악회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교도소,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등 문화 소외 지역 및 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힐링 음악회로 2007년부터 연간 130여 회 무료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여름밤 세종호수공원에서 정기 공연도 개최하고 있다. 정통 클래식을 포함해 다양한 장르를 융합한 공연으로 차별화를 꾀하며 지역민의 문화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다. 계곡산에서 시작된 뽀뽀한 클래식은 에코힐링(eco-healing)으로 정의할 수 있다. 자연(ecology)과 치유(healing)의 합성어인 에코힐링은 '자연을 통해 몸을 치유한다'는 의미로, 자연과 사람은 하나라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자연 속에서 많은 사람이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와 축제, 문화 공연을 통해 건강한 삶을 선물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것이 맥키스컴퍼니가 지향하는 사회 공헌이기도 하다.



1 맥키스컴퍼니에서 주최하는 대전맨몸마라톤대회는 1월 1일 11시 11분 11초에 출발하는 새해맞이 행사로, 지역의 명물로 자리매김했다.
2 이제우린으로 조성한 지역 장학금을 전달하는 조웅래 회장



고향 사랑을 실천하는 맥키스컴퍼니

☞ 맥키스컴퍼니에는 소외된 이웃을 위해 활동하는 '맥키스봉사단'이 있다. 임직원으로 구성된 맥키스봉사단은 2005년 창단 이래 지역 이슈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지역 상권 환경 정화, 연탄 나르기, 김장 봉사,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 등 다양한 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당시에는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촌 지역을 방문해 모판 나르기, 사과나무 적과 작업 등으로 일손을 보태기도 했다. 도농 교류 활성화로 맺은 1사 1촌 농촌 봉사가 제대로 빛을 발했다는 후문이다. 지난해 새로운 사회 공헌 프로그램으로 시작한 '린생사진첩'도 지역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맥키스컴퍼니 임직원이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해 무료 사진 촬영과 자녀들에게 전하는 영상 편지를 제작해 전달하는 형식이다. 프로그램 목적은 '어르신들의 가장 밝은 순간을 포착'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말벗이 되어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독사진, 부부 사진, 가족사진은 물론 반려견과 함께한 사진 등으로 자연스러운 일상 모습을 담아낸다. 현재까지 부여, 청양, 서천, 보령, 태안 등 충남 도내 12개 시군 153가구 238명을 방문해 사진과 영상 편지를 제작해 전달했다. 해당 사업은 가족 간 교류가 원활하지 않은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며 반가운 영상과 함께 보고 싶은 얼굴을 전하며 작은 위로를 전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사회를 생각하는 다양한 사회 공헌으로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도입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대전 지역 민간 중 유일하게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4년 연속 선정되었다. 맥키스컴퍼니는 앞으로도 우리 삶과 밀접한 부분의 즐거움을 나누고, 지역사회와 상생·공존할 수 있는 일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기업 철학을 이어나갈 것이다. 이제우린으로 달라질 충청의 내일을 기대해도 좋다. 🍀

3, 4 어르신들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담은 '린생사진첩'은 고향을 떠난 자식들에게 반가운 안부를 전하며 잔잔한 감동을 전해준다.
5 클래식에 뮤지컬, 연극, 개그 요소를 가미한 뽀뽀(fun fun)한 클래식은 3세대(代)가 같이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사랑받고 있다.

다른 그림 찾기에 도전하세요

내일의꿈이영글어갑니다

'배우는 기쁨'이라는 말처럼 무언가 배운다는 건 즐거운 일이다. 배움을 통해 예상치 못한 재능을 발견하기도 하고, 때론 미래를 준비하는 힘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누구나 배움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사랑의열매는 누구나 마음껏 배우고,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 저마다의 빛깔로 영글어가는 꿈을 응원하며 배움에 도전하는 이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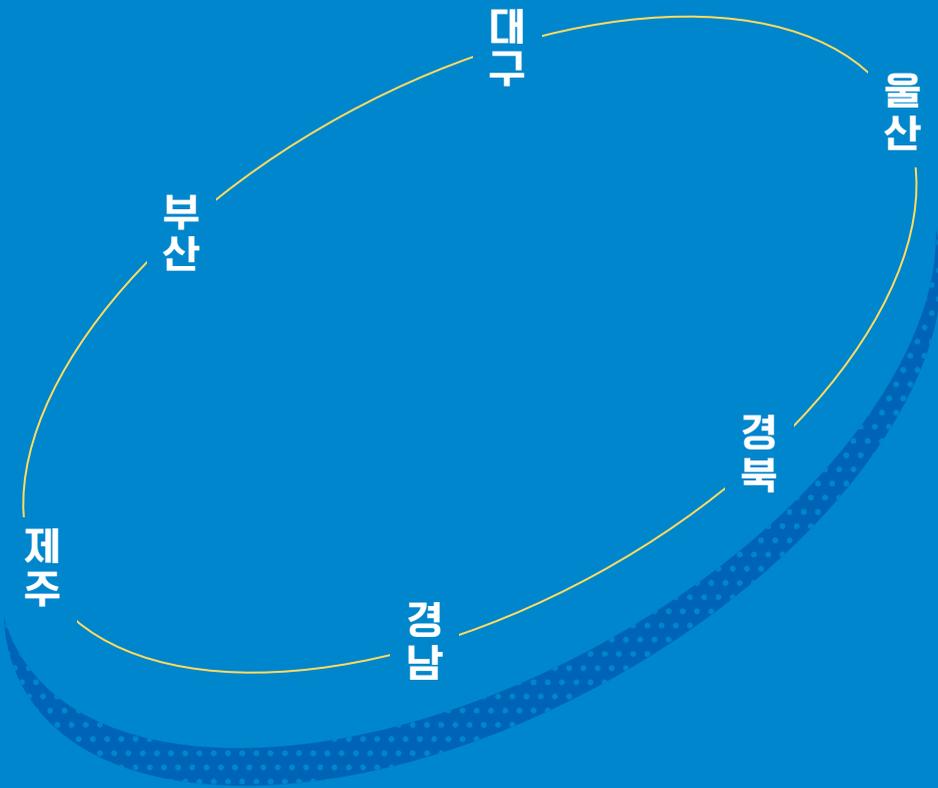


다른 부분은 총 다섯 곳, 모두 찾은 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다섯 곳을 모두 표시한 후 사진을 찍어 사랑의열매 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름과 연락처도 꼭 적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세 분께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마감 일자 매월 20일 사랑의열매 이메일 cckpr@chest.or.kr

8월





2023부산세계장애인대회에 기부금 전달 “부산 시민 덕분에 성공적 개최 발판 마련”

지구촌 장애인의 소통과 축제의 장인 2023부산세계장애인대회의 막이 오른다. 전 세계인 앞에 잘 준비한 모습을 보이기까지 부산 시민의 따뜻한 마음과 응원이 있었다. 글 이선희 사진 부산사랑의열매



(왼쪽부터) BNK부산은행 성금 전달식에서 2023부산세계장애인대회 조창용 부대회장, BNK부산은행 방성빈 은행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부산 사랑의열매 최금식 회장, 2023부산세계장애인대회 조직위원회 오준 공동위원장



DRB동일, (주)지맥스, 선보유니텍(주)이 총 5,000만 원을 부산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세계적 장애인 대회가 부산에서 개최된다는 소식을 듣고 부산의 향토 기업으로서 도움이 되고자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 DRB동일 류영식 대표이사

“전 세계 장애인의 축제가 부산에서 열린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 (주)지맥스 정성우 대표이사(부산 아너 클럽 회장)

부산 첫 장애 복지 분야 국제 행사

전 세계 장애인이 한자리에 모여 우호적 환경 조성, 장애 친화적 제도와 정책 등을 공유하는 2023부산세계장애인대회가 8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지구촌 대전환, 그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개최하는 이번 대회에서 전 세계 새로운 장애 패러다임을 선포할 것으로 예상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후문. 부산에서 열리는 첫 장애 복지 분야 국제 행사를 위해 부산 사랑의열매는 물론, 기업과 시민 등 모두가 힘을 보탰다.

“뜻깊은 행사에 함께할 수 있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스카이블루에셋 연산사업본부 양옥자 총괄이사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에 지속적으로 관심으로 갖고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스카이블루에셋 연산사업본부 광희정 본부장

뜻깊은 기부 참여 이어져

2023부산세계장애인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24일 부산의 기업들이 발 벗고 나섰다. DRB동일 2,000만 원, (주)지맥스 2,000만 원, 선보유니텍(주) 1,0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을 부산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이 외에도 BNK부산은행 1억 원, (주)협성종합건설 2,000만 원, 은산해운항공(주) 1,000만 원 등 부산 지역의 많은 기업이 기부에

동참했다. 한편, 6월 16일에는 스카이블루에셋 연산사업본부 광희정 본부장과 양옥자 총괄이사가 각각 2,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을 기부했다. 또한 은산해운항공(주) 양재생 회장이 1억 원을 기탁하는 등 부산 시민들의 뜻깊은 참여가 이어졌다. 부산 사랑의열매는 이렇게 모인 기부금 5억 1,500만 원을 대회 조직위원회에 전달하며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모두의 염원까지 전했다. 🍀



10여 년간 이웃사랑 실천해온 본전식당 최복향 대표

“나눔을 통해 행복해집니다”

대구 음식점업계 최초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된 본전식당 최복향 대표,
그의 뜨끈한 나눔 이야기를 만나보자. 글 강은진 사진 대구 사랑의열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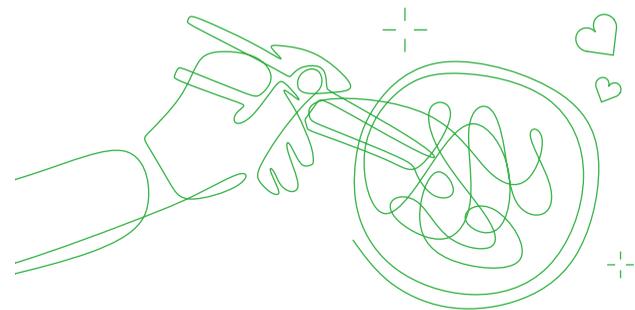


2017년 8월 대구 아너소사이어티 102호 회원에 이름을 올린 본전식당 최복향 대표의 가입식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 이렇게
나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 최복향 대표

대구 최초, 음식점 대표 아너

“모르면 간첩”이란 말이 있다. 그만큼 유명하다는 뜻이다.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칼국수 전문점 본전식당이 그렇다. 무려 36년 동안 변함없는 맛과 정성으로 대구를 넘어 전국구 맛집으로 명성이 자자하다. 그러나 본전식당에는 “모르면 간첩” 소리 듣는 게 음식 말고 하나 더 있다. 바로 본전식당 최복향 대표다. 그는 지난 2017년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했다. 당시 음식점 대표의 아너 가입은 대구 최초로 안팎으로 큰 화제를 모았다. 그리고 올해 약정 기부금도 모두 완납했다. 몇 년 전부터 공황장애 증세로 건강이 악화된 데다 코로나19로 경기침체까지 더해지며 어려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최복향 대표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나와 의 약속을 저버릴 수 없었다”면서, “월 17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금액을 줄여서라도 기부를 이어온 게 가장 ভাল 일 같다.”고 말했다. 아너 소사이어티 기부금 외에도 최복향 대표는 현재 대구공업고등학교, 대구일마이스터고등학교, 홀트아동복지회 등 여러 학교와 기관에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식당이 위치한 관내 이웃들을 위해 쌀과 고기 등 현물 기부도 지속하고 있다. 지금까지 기부 누적금액만 1억 6천여만 원에 달한다.



지금도 변함없이 식당으로 출근하는 최복향 대표,
뒤로 후원증서들이 보인다.

어려운 마음 알기에 도와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가던 최복향 대표는 회사를 다니던 남편이 갑자기 경제활동이 어렵게 되자 살던 집을 개조해 본전식당을 시작했다. 장사 경험도 없이 홀로 칼국수를 끓이며 갖은 고생을 다 했다. 직접 이 같은 어려움을 겪어본 탓에 식당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이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개업 초기에도 힘든 어르신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밥과 국수를 대접하던 그는 주민센터에 현물 기부를 시작으로, 식당에 온 교육청 손님들에게서 장학 사업 이야기를 전해 듣고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하며 본격적인 나눔을 실천했다. 최복향 대표는 “장사를 시작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순간이 있었다”면서 “내가 도움받지 못해 그런지 자연스럽게 돕고 싶고 기부하고 싶더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기부가 이웃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만 해도 정말 행복하다며 웃었다. 가게 한쪽에 고이 보관한 학생들의 감사 편지는 최복향 대표의 보람이자 자랑이다. “건강이 허락하는 순간까지 대구 이웃들을 위해 기부를 멈추지 않겠다”고 말하는 최복향 대표다. 사람들의 마음을 뜨끈하게 데워주는 것은 비단 칼국수만이 아닐 것이다. ♡



울산 사랑의열매 한시준 전 회장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봉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제10대 울산 사랑의열매 회장을 역임한 한시준 전 회장이 87년의 봉사과 나눔 인생을 한 권의 책에 담았다. 주변 지인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출판기념회를 열지 않았고, 대신 그 비용을 울산 사랑의열매에 기부했다. 글 이선희 사진 울산 사랑의열매



제10대 울산 사랑의열매 회장을 역임한 한시준 전 회장

인생 87년 봉사와 나눔의 삶

한시준 전 회장이 미수(米壽)를 한 해 앞두고 삶의 궤적을 정리한 회고록 <인생 87년 奉仕(봉사)와 나눔의 삶>을 출판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울산시의사회 회장, 울산 사랑의열매 회장, 국제로타리 3720지구 총재 등을 역임하며 평생 봉사하는 삶을 살아온 그의 인생을 기록으로 촘촘히 담았다. 평소 지역사회에 명망이 높은 터라 그의 회고록 소식이 들려오자 주변에선 출판기념회를 열자는 요청이 많았다. 하지만 화려한 기념회 대신 한 전 회장이 찾은 곳은 울산 사랑의열매였다. 지난 6월 13일 저소득 장애인 전동 휠체어를 지원하고자 성금 500만 원을 울산 사랑의열매에 기탁하며 ‘봉사와 나눔의 삶’을 변함없이 이어갔다.



한시준 전 회장이 기탁한 성금 500만 원은 저소득 장애인 전동 휠체어 지원에 사용했다.

울산 기부 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

2015년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하며 울산 사랑의열매와 연을 맺은 한시준 전 회장은 2018년 10월 회장직에 취임했다. 당시 “봉사하는 마음으로 울산의 복지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다짐으로 회장직을 수락했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임기 3년 동안 울산이 나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은 것은 물론, 복지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로 평가받는다. 또 아너 소사이어티 100호 회원 및 착한가게 3000호를 돌파하며 기부 문화 저변 확대에도 결정적 역할을 했다. 한 전 회장은 이번 저소득 장애인 전동 휠체어 성금 전달식에서 울산 사랑의열매 회장을 역임하며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깊이 새기고 있음을 드러낸 바 있다.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남을 배려할 때 사랑을 베푸는 아름다운 사회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울산 내 기부자들을 만나며 다시 한번 느꼈다”며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봉사하며 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로 짧지만 진한 진심을 전했다. ❀

“나눔은 더불어 사는 사회로 만드는 희망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 기회를 소중히 여겼으면 합니다. 사랑의열매로 아름답고 행복한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 울산 사랑의열매 한시준 전 회장 2018년 취임 인터뷰



한시준 전 회장이 미수를 한 해 앞두고 출판한 회고록 <인생 87년 奉仕와 나눔의 삶>



희망투게더 지원 사업 지원금 전달 누구도 홀로 있지 않도록 따뜻한 사랑을 전합니다

경북 사랑의열매가 소외된 이웃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지원에 나섰다.
누구도 혼자 외롭게 지내지 않도록 온기 가득한 희망을 전한다.

글 이선희 사진 경북 사랑의열매, 대한적십자사경북지사



지난 6월 20일 경북 사랑의열매 전우현 회장이 희망투게더 지원 사업 지원금을 대한적십자사경북지사 김재왕 회장(왼쪽)에게 전달했다.



대한적십자사경북지사에서 진행한 고독사 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1인 가구 어르신에게 생필품을 전달한 봉사원들

이웃을 위한 희망투게더

지난 6월 20일 경북 사랑의열매는 대한적십자사경북지사에게 '희망투게더 지원 사업' 지원금 3억 원을 전달했다. 희망투게더 지원 사업은 경북 도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계층을 발굴해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시작했다. 경북 사랑의열매에서 지원한 3억 원은 대한적십자사경북지사 소속 봉사원이 취약 계층 1,200세대를 매달 방문해 물품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고독사 방지 및 심리적 지지 강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지원금 전달식과 함께 경북 사랑의열매와 대한적십자사경북지사는 '경상북도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 공헌 협약'을 체결했다. 사랑의열매 지회와 적십자 지사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을 진행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취약 계층 지원 및 봉사 프로그램을 공동 전개하는 등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눔문화 확산 및 소외 계층을 돕기 위한 공동 사회 공헌 사업 전개 등의 활동을 적극 추진해나갈 전망이다. 🍀

MINI INTERVIEW

대한적십자사경북지사 구호봉사팀 조윤길 과장



희망투게더 지원 사업을 어떻게 기획하게 되었나요?

고독사 예방 사업은 저희 경북지사에서 20년 넘게 진행해온 중요한 사업 중 하나입니다. 도내 홀로 사는 어르신이 많아 고독사 등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자 봉사원이 1인 가구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이죠. 하지만 기존 사업에서 예산 문제로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경북 사랑의열매에 사업을 제안해 희망투게더 지원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 사업에서 아쉬웠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기존에는 1년 중 5개월 동안 사업을 전개하는 터라 1인 가구 800세대를 방문하는 데 만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생필품을 비정기적으로 전달하니 대상자도 이를 예측해서 준비하는 게 힘들다고 하더군요.

희망투게더 지원 사업으로 가장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요?

먼저 사업 기간과 대상자가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12개월 동안 1,200세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랑의열매 지원 덕분에 매달 방문할 수 있어 대상자의 건강 체크, 심리적·사회적 지지 강화 등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희망투게더 지원 사업으로 대한적십자사경북지사 봉사원들은 매달 대상자의 집을 방문해 통합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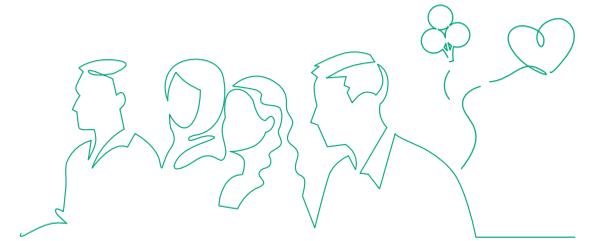
사회 공헌 문화 확산 선포한 경상남도 “도민이 행복한 경남을 위한 큰 발걸음”

사회 공헌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며 보다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상남도가 앞장서고 있다. 글강은진 사진경남사랑의열매



사회공헌문화 확산 선포식을 통해 기부에 동참한 기업 및 개인 기부자들

“기부자의 나눔 정신이 후세에 전해지도록
최선을 다해 예우할 것입니다.” - 경남 사랑의열매 강기철 회장



도민 위한 기부 이어져

사회 공헌 문화 확산 선포식에서는 기업 및 개인의 기부도 이어져 더욱 뜻깊었다. 먼저 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 경남본부, 한국남동발전이 대한민국 대표 고액 기업 기부자 모임인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했다. 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 경남본부는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왔다. 한국남동발전 역시 지난 20여년간 취약 계층 지원 및 임직원 봉사단을 통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이어 한택 이진국 대표가 1억 원을 약정하며 개인 고액 기부자 모임 아너 소사이어티 경남 151호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마지막으로 창원한마음병원이 1억 원을 기부했다. 보육 시설 및 저소득 아동의 의료비와 생계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온 창원한마음병원은 행복, 봉사, 사랑, 노력의 가치 아래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경남 사랑의열매 강기철 회장은 “기부자님의 소중한 나눔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전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한편, 지난 6월부터 경상남도가 발의한 ‘경상남도 사회 공헌자 예우에 관한 조례’가 도의회에서 의결된 후 시행되고 있다. ♣



지난 6월, 경남 사랑의열매에서 진행한 NH농협은행 경남본부 나눔명문기업 가입식

사회 공헌 문화 확산 선포식 개최

지난 5월 31일, 경남 사랑의열매와 경상남도는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사회 공헌 활성화와 활동 촉진을 위한 ‘사회 공헌 문화 확산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경남 사랑의열매와 대한적십자사경남지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남지역본부, 경남광역푸드뱅크 4개 모금 기관이 모여 진행했다. 또 사회복지협의회, 창원상공회의소, 사회서비스원 등 관련 기관과 기부자 15명도 함께 자리해 사회 공헌 문화 확산 의지를 다졌다. 경상남도는 선포식에서 사회 공헌 문화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경남형 사회 공헌 인증’ 시행 ● ‘명예의 전당’ 조성 ● 사회 공헌 주간 운영 ● 경상남도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 9개 과제를 골자로 한다. 이어 경남 사랑의열매 강기철 회장과 4개 모금 기관은 ‘공헌 문화 확산 메시지’를 선포하고, 생활 속 공헌 문화 정착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선포식을 시작으로 민선 8기 도정 목표인 도민이 행복한 경남을 위해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고, 기부 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며, “기부자들이 보람과 자긍심을 가지며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남도청에서 개최한 사회 공헌 문화 확산 선포식

이웃들의 일상 회복 위해 바자회 개최한 제주 W아너 “착! 착! 착! 제주를 응원합니다”

제주 이웃들을 위해 바자회를 개최한 제주 W아너가
봉사의 가치까지 전하며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글 강은진 사진 제주 사랑의열매



‘우리제주 일상회복 착!착!착! 나눔캠페인’의 일환으로 일일 바자회를 개최한 제주 W아너 회원들

활짝 열린 나눔의 장

지난 7월 8일, 제주시 이도동의 한 카페에서 제주 사랑의열매 여성 고액 기부자 모임인 제주 W아너 소사이어티가 주최하는 일일 바자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제주 사랑의열매가 진행하는 ‘우리제주 일상회복 착!착!착! 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무더운 여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 참여를 독려하고자 마련한 자리였다. W아너 회원들은 바자회를 위해 수제 청, 꿀, 잼, 미숫가루, 떡 등 다양한 먹을거리와 음료 등을 손수 준비했으며, 성금 마련을 위해 하루 동안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느라 구슬땀을 흘렸다. 제주 W아너 리더인 (주)오현개발 김순희 대표는 “W아너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조직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했다”면서, “일상회복 나눔캠페인에 발맞춰 이웃들을 돕고자 회원들이 마음을 모았다”고 말했다. W아너 회원들이 마련한 나눔의 장은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여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이날 바자회를 통해 모인 성금은 총 502만 원으로 전액 제주 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의 일상 회복과 여성 복지 증진에 사용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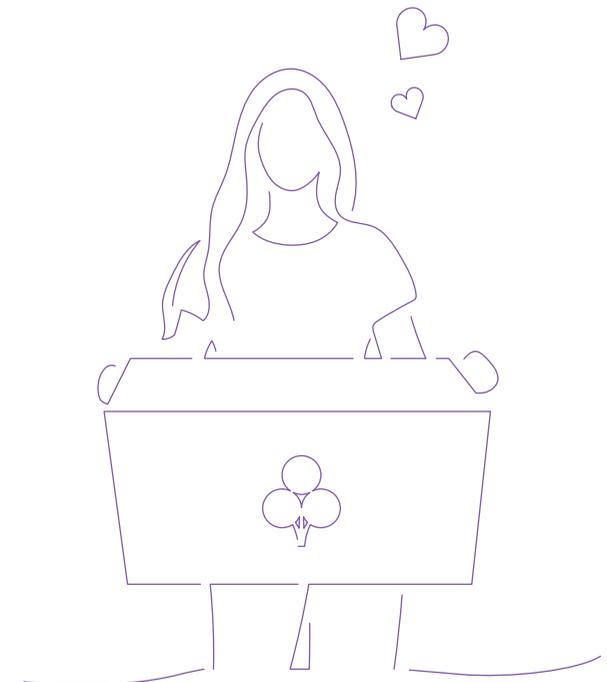
지역 주민 100여 명이 방문했을 정도로 성황리에 진행된 바자회 현장

“일일 바자회를 통해 처음 봉사를 시작했을 때가 떠올라 보다 뜻깊었습니다.”

-(주)오현개발 김순희 대표

다양한 봉사 활동 예정

제주 W아너 회원들은 누구보다 지역사회를 위해 기부에 앞장서왔다. 그럼에도 바자회를 통해 봉사의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제주 W아너 리더 김순희 대표는 “많은 기부 활동에 참여해왔지만, 직접 시간을 내 봉사한 건 오랜만”이라며, “땀을 흘려가며 바쁘게 몸을 움직이는 봉사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새삼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회원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바자회를 성공적으로 끝낼 수 없었다”면서 감사의 인사도 잊지 않았다. W아너 회원들은 이번 바자회를 발판 삼아 앞으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봉사과 기부 등 활발한 나눔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 W아너 소사이어티는 리더 김순희 대표를 중심으로 여성 기업인, 음식점 대표 등 제주 지역사회 내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인 20여 명의 여성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





참 좋은 당신이 있어 세상이 1°C 따뜻해집니다

전국 3133호(강원 105호)



정연권 (주)신도시종합건설 대표

"아너 소사이어티에 이름을 올릴 수 있어 대단히 영광입니다. 자녀들이 이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살 만한 나라가 되는 데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전국 3151호(충남 118호)



박주연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남을 돕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합니다. 어려움과 곤경에 처한 이들은 없는지 먼저 살피고,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국 3165호(경남 151호)



이진국 한택 대표

"나눔으로 키워가는 사람 사는 세상."

전국 3168호(전남 144호)



이혜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따뜻한 나눔을 전할 수 있어 기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길 기원합니다."

전국 3170호(경북 156호)



하준호 (주)엔이에스 CEO

"나눌수록 더 행복하고 보람차다는 것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어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했습니다. 나눔은 우리 사회를 더 나은 세상으로 이끈다고 믿습니다. 저의 나눔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꿈과 희망으로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전국 3171호(경북 157호)



배화찬 (주)BHC유통 대표이사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길 기다리기보다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더 값진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했습니다. 지역에서 받은 사랑과 감사를 작으나마 나눔으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전국 3181호(대구 218호)



신정권 (주)백메가 대표

"SayNo 스승님! 만수무강하십시오."

전국 3182호(충남 119호)



이은숙

"나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 행복이자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3183호(부산 323호)



김진홍 부산동구청장

"나눔을 통해 세상이 좀 더 따뜻하고 아름다워지길 희망합니다."

전국 3186호(경남 152호)



조갑연 코오롱한샘유치원 이사장

"따뜻한 사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에서 시작되고, 모두의 실천에서 완성됩니다."

전국 3192호(대구 219호)



조민재 (주)제이블린 대표

"작은 실천이 큰 메아리가 되어 따뜻한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국 3194호(부산 322호)



황성문 (주)경민상사 대표이사

"우리 이웃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전국 3200호(광주 161호)



조성은 (주)무진기연 대표이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잘 활용해 사회 기여라는 기업 책무를 다하고, 더 나아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전국 3203호(대구 220호)



이현태 (주)티씨엔플러스 회장

"호남에서 와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전국 3184·3185호(전남 145·146호)



명경식·홍영해 (유)케이엠티 대표이사 부부

"나눔과 배려는 사회적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나눔을 실천하게 돼 기쁘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전국 3187호(부산 324호)



윤은규 이원종합건설(주) 대표이사

"나눔은 미래의 희망과 행복입니다."

전국 3193호(충북 75호)



강사육

"저의 나눔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전국 3195호(부산 325호)



장준용 부산동래구청장

"나눔, 행복100. 한 가지의 나눔을 행하면, 백 가지의 행복이 돌아옵니다."

전국 3201호(대전 110호)



박정문 에이플러스비전생년방 대표

"나눔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서울 익명(매일리아너)4명 전남 박상기 상계제일교회 원로장로

경기 한성우 목항원 대표

세종 김정수 숲속의책놀이터 (주)정음 센터장

중앙회

폭염 취약계층 2만 9,000명 대상, 시원한 여름나기 63억 원 지원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원한 여름나기 지원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삼계탕 등 보양식을 전달했다.

사랑의열매가 연이은 폭염과 열대야, 에너지 요금 상승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을 위해 혹서기 지원 사업 '시원한 여름나기'를 진행한다. 지원금 규모는 2022년 지원 금액인 56억 원보다 약 12% 증액한 63억여 원이다. 지원 대상은 에너지 취약 계층을 비롯한 지역아동센터, 한부모 가정 복지시설 등 소규모 취약 기관,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 가구, 쪽방 거주민과 노숙인 등 총 2만 9,000여 명이다. 사랑의열매는 이웃이 여름을 건강

하게 보낼 수 있도록 냉방비 및 냉방 기구, 기초 생필품, 보양식 등을 전국 지자체와 945개 배분 협력 기관을 통해 전달한다. 사랑의열매 김병준 회장은 “때 이른 불볕더위에 에너지 요금 등 물가 상승으로 고된 시간을 보내는 이웃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졌다”며 “전국 각지에서 모은 마음을 담아 우리 이웃이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집중호우 피해 지원 특별 모금, 8월 16일까지 전개

사랑의열매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특별 모금을 전개 중이다. 지난 7월 13일부터 전국적으로 쏟아진 폭우로 산사태와 지하 차도 침수 등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이어졌다. 특히 충청과 경북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큰 피해가 발생해 7월 23일 기준 사망자 수는 47명에 달하고 3명이 실종된 상태다. 사랑의열매는 예기치 못한 폭우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이웃을 지원하기 위해 8월 16일까지 특별 모금을 전개하고, 기부금은 집중호우 피해 지역의 복구 지원과 구호 물품 제공, 이재민 주거 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사랑의열매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특별 모금 전용 계좌 등을 통해 기부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부 관련 상담은 사랑의열매 나눔콜센터 (080-890-1212)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

관악구, 지자체 최초 유산기부 업무 협약 체결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지자체 최초로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유산기부를 희망하는 구민에게 기부 방법을 알리고, 조성한 기금으로 관악구 내 취약 계층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자신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마무리하고자 하는 기부자의 소중한 뜻을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빌딩 종합 관리 회사 KSNK, 착한기업 가입으로 나눔 동참



빌딩 종합 관리 회사 KSNK(대표 송상헌)가 '우리서울, 일상회복 착!착!착! 나눔캠페인' 착한기업 1호로 가입했다. 매월 450만 원씩 연 5,400만 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했으며, 기부금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쓸 예정이다. 송상헌 대표는 “지역사회가 발전해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며 “KSNK의 성장을 위해 사회 공헌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부산

스티물 주식회사, 8억 원 상당 의류 기부



무역업체 스티물 주식회사(대표 김스타니슬라브)가 8억 원 상당의 성인·아동 의류 2만 2,693벌을 부산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의류는 부산 지역 16개 구·군에 있는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했다. 김스타니슬라브 대표는 “어려모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을 돕고 싶다”며 지속적인 나눔을 약속했다.

시원한 여름나기 지원 사업 2억 원 배분금 전달



부산 사랑의열매가 올여름 폭염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시원한 여름나기 지원 사업을 실시했다. 총 2억 원의 지원금을 배분했으며, 에너지 취약 계층 1,322세대에 냉방 기기 및 전기요금 등을 지원했다. 부산 지역 종합사회복지관 54곳과 협력해 지역 특성 및 대상자별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했다.

대구

동구안심1동,
착한캠페인 단체 가입



대구 사랑의열매는 6월 22일 동구 안심1동의 착한캠페인 단체 가입식을 진행했다. 이번 단체 가입에는 착한가게 22 곳, 착한가정 2가구, 착한시민 20명이 동참했다. 성금은 안심1동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현숙 안심1동장은 “기부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광명에너지, 대구시 군위군 첫 번째
나눔명문기업 가입



(주)광명에너지가 대구 13호이자 군위군 1호 나눔명문기업으로 가입했다.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된 이후 첫 번째 기부라 더욱 의미가 크다. (주)광명에너지는 평소 지역을 위한 사회 공헌에 높은 관심을 갖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가입으로 매월 500만 원씩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광주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친선골프 대회 개최



광주 사랑의열매가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들이 참석하는 친선골프 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광주 사랑의열매 박철홍 회장, 광주 아너 클럽 김동기 회장, 광주 사랑의열매 한상원 전대 회장을 비롯한 40여 명의 아너 회원이 참석했다. 박철홍 회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 활동에 앞장서는 아너 모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8호 나눔명문기업
한국경영원에 현판 전달



한국경영원(대표이사 김보현)이 1억 원 기부를 약속하고 광주 8호 나눔명문기업으로 가입했다. 김보현 대표이사는 “우리의 나눔이 이웃에게 따뜻한 희망으로 다가갈 바란다”며 “지역과 함께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원은 2019년부터 각종 특별 모금에 참여해 지금까지 총 6,000여만 원의 성금을 기부했다.

인천

폭염 대비 여름 나기 지원 사업,
8,938세대에 3억 원 지원



인천 사랑의열매가 에너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물품 및 냉방비를 지원하는 폭염 대비 여름 나기 지원 사업을 실시했다. 작년보다 지원 대상을 확대했으며, 사회복지 기관 154개소와 에너지 취약 계층 8,938세대에 총 3억 원 상당의 냉방비·보양식·여름 생활용품(이불, 의류, 긴급 의약품 등)을 지원했다.

SSG랜더스 추신수 선수,
3년째 기부 캠페인 진행



SSG랜더스 추신수 선수가 순직 경찰 및 소방공무원 유가족과 저소득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행복 랜딩 기부 캠페인을 진행한다. 2023년 정규 시즌 중 추신수 선수가 기록을 달성할 때마다 기부금을 적립하는 방식이다. 추신수 선수는 2021년 10억 원, 2022년에 1억 200만 원을 기부하며 3년째 꾸준한 선행을 실천하고 있다.

대전

대전시민장례식장,
착한가게 가입으로 나눔 실천



시니어요양병원 부설 대전시민장례식장(대표 김영선)이 착한가게에 가입했다. 대전시민장례식장은 고인과 함께 베푸는 마지막 선행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2년간 총 1,700여만 원을 기부하는 한편, 꾸준히 정기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김영선 대표는 “나눔에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더 많은 가게가 동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대전지회,
바자회 수익금 전액 기부



한국여성경제인협회대전지회(회장 최석화)가 제2회 여성기업 주간 및 창립 24주년을 기념하며 진행한 바자회 수익금 전액을 기탁했다. 성금 1,601만 8,000원은 보호 종료 아동 및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는 데 쓸 예정이다. 최석화 회장은 “많은 분의 참여로 큰 수익금을 낼 수 있었다”며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울산

경동도시가스, 울산 나눔명문기업 6호로 가입



경동도시가스(회장 송재호)가 울산 나눔명문기업 6호로 가입했다. 송재호 회장은 “북구 기업 최초로 나눔명문기업에 동참해 기쁘다”며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전했다. 울산과 양산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동도시가스는 2001년부터 매년 울산 사랑의열매를 통해 나눔을 펼치고 있다.

JCN울산중앙방송, 이웃사랑 실천하며 나눔명문기업 가입



JCN울산중앙방송(대표 구자형)이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함으로써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구자형 대표는 “JCN울산중앙방송은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CN울산중앙방송은 울산 지역 유일한 케이블TV 사업자로, 40만 고객에게 신속한 정보를 전달하며 울산시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경기북부

2023양주시 온품 캠페인 선포식 개최



경기북부 사랑의열매가 지난 6월 21일 양주시청에서 2023 양주시 온품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했다. 온품 캠페인은 ‘온 마을을 품다’의 줄임말로, 2021년 6월 양주시와 경기북부 사랑의열매가 민관 협력 자원 개발 관리 체계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진행되는 연중 모금 캠페인이다. 선포식 후에는 2022년 나눔 유공자 표창 수여식도 함께 진행했다.

연천군 청산면, 131공병대대와 여름 나기 봉사 활동 진행



연천군 청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131공병대대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여름 나기 꾸러미 지원 사업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연천군 청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제5공병여단 131공병대대 간부들과 함께 여름철에 꼭 필요한 꾸러미(삼계탕, 갈비탕, 미니 선풍기, 해충 기피제 등)를 포장한 후 청산면 내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직접 전달했다.

경기

예인부부한의원, 더베스트 착한가게 1호 선정



경기 사랑의열매가 일상회복 착착! 착! 나눔캠페인 시작과 함께 더베스트 착한가게 50곳을 선정했다. 2009년 경기1호 착한가게로 가입한 예인부부한의원(원장 김인경)을 더베스트 착한가게 1호로 선정하고 현판을 전달했다. 김인경 원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더 힘든 이웃을 위해 기부를 실천했다”며 “앞으로도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비발디나눔 사업으로 에너지 취약 계층 지원



경기 사랑의열매가 2023년 여름 폭염과 폭우를 대비해 경기비발디나눔 사업 ‘시원한 여름나기’를 진행했다. 경기비발디 나눔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위한 계절특화 지원 사업이다. 이번 여름엔 쪽방 거주민과 노숙인을 포함한 에너지 취약 계층 4,000여 명에게 선풍기, 쿨매트, 영양식 등 여름용품과 냉방비를 지원했다.

강원

(주)신도시종합건설 정연권 대표, 아너 회원 가입



(주)신도시종합건설 정연권 대표가 강원도 105호이자 강원 24호 아너로 이름을 올렸다. 평소 꾸준히 기부를 실천해오던 정연권 대표는 강원 지역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자 아너에 가입했다. 정연권 대표는 “아너 회원으로 가입하게 돼 영광이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춘천시나눔봉사단, 초복삼계탕 지원



지난 7월 11일 춘천시나눔봉사단(단장 한금동)이 춘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초복 삼계탕 지원 행사를 실시했다. 행사 후 춘천시 저소득층 180가구에 삼계탕을 전달했다. 춘천시나눔봉사단은 2020년부터 해마다 초복·중복이면 저소득 주민들에게 삼계탕을 지원하고 있다. 한금동 단장은 “삼계탕을 드시고 무더위를 건강하게 이겨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북

(주)에라토,
6년째 생활 도자기 기탁



생활 도자기 자체 생산 기업 (주)에라토(대표이사 명수호)가 7,200만 원 상당의 생활 도자기 1만 9,400여 점을 전달했다. 명수호 대표는 도내 사회복지 기관에서 식기류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소식을 듣고 2018년부터 생활 도자기를 기탁하고 있다. 이번에 기탁한 그릇들은 사회복지 기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2023년 복권기금,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배분



충북 사랑의열매가 2023년 복권기금 5억 1,632만 2,780원을 아동·청소년 방학 프로그램 및 노후 기기 개선 사업에 지원했다. 사업 수행 기관으로 선정된 도내 83개 사회복지 시설 및 기관에 성금을 전달했으며, 역사·문화 탐방, 캠프 등 현장 체험 프로그램과 신학기 물품 지원, 노후 기기 수리 및 클리닝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충남

충남 사랑의열매 회장 배우자 이은숙 씨,
아너가입으로 사랑 나눔



충남 사랑의열매 성우증 회장의 아내 이은숙 씨가 충남 119호 아너 회원으로 가입했다. 충남 3호 아너 회원인 성우증 대표는 지금까지 총 32억 원을 기부했다. 2015년 성 회장의 동생 럭스피아(주) 성석중 대표에 이어 2016년 성 회장의 자녀인 성연수 대표도 아너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번 이은숙 씨의 가입으로 패밀리 아너 인원이 한 명 더 늘었다.

한국중부발전(주),
지역사회 재난 안전망 구축 위한 성금 기탁



한국중부발전(주)가 재난 안전 분야 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취약 계층의 재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 사업에 8,700만 원을 기탁했다. 한국중부발전(주) 조한형 안전보건처장은 “향후에도 안전 두드림(Do-Dream)이라는 재난 안전 사회 공헌 브랜드에 걸맞은 다양한 활동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희망2023나눔캠페인
유공자 시상식 개최



전북 사랑의열매가 지난 6월 29일 희망2023나눔캠페인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은 캠페인 기간 동안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이들과 배분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현장에서 노력한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마련한 것. 임상규 전라북도행정부지사는 “나눔 정신이 널리 퍼져 도민이 행복한 전라북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경찰서·세아베스틸,
범죄 피해 가정 지원 업무 협약



군산경찰서(경찰서장 강태호)와 세아베스틸(대표이사 김철희·신상호)이 전북 사랑의열매와 범죄 피해 가정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범죄 피해를 입은 가정 중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긴급 생계비와 치료비 등을 연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분기별로 지원할 예정이다.

전남

이혜은 신규 아너가입,
전남 3호 패밀리 아너 합류



전남 14호 아너인 태영전자(주) 김영수 회장의 큰며느리 이혜은 씨가 전남 144호 아너 회원으로 가입했다. 김영수 회장 부부와 작은아들 내외에 이어 큰며느리까지 가입하며 전남 3호 패밀리 아너가 다섯 명으로 늘었다. 이혜은 씨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나눔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이웃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화순군 현대힐스테이트어린이집,
나눔장터 수익금 기탁



화순군에 위치한 현대힐스테이트어린이집(원장 김영선)이 일상회복 착착착! 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 어린이집 원아들을 대상으로 '아나바다 나눔장터'를 열고 마련한 성금은 화순 지역 취약 계층을 위한 냉방비 지원에 사용한다. 김영선 원장은 “앞으로도 아이들이 나눔의 기쁨을 알 수 있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경북

이철우 경북도지사, 우리경북, 일상회복 착!착!착! 1호 기부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우리경북, 일상회복 착!착!착! 나눔캠페인에 첫 번째로 성금을 기부했다. 성금은 경북 지역 취약계층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냉방비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힘들 때마다 십시일반의 위력을 보여준 도민 여러분이 자랑스럽다”며 “이번 여름에도 나눔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 이웃사랑 성금 기탁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본부장 박범수)가 이웃사랑 성금 6억9,600만 원을 기탁했다. 성금 중 4억7,500만 원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집수리 및 방역 소독 등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며, 2억2,100만 원은 지역 우수 봉사단체 활동, 복지 기관 및 시설의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쓸 예정이다.

제주

영웅시대 제주, 임영웅 생일 기념 616만 원 기부



가수 임영웅의 공식 팬클럽 영웅시대 제주 회원들이 6월 16일 임영웅의 생일을 기념해 성금 616만 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제주도 내 청소년의 자립 및 미래 성장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영웅시대 제주는 2022년 9월에도 임영웅의 데뷔 6주년을 기념해 성금 6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전국적인 팬클럽의 건강한 나눔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2023년 제주 사랑의열매 프로포절 교육 수료식 진행



제주 사랑의열매가 지난 7월 14일 2023 제주 사랑의열매 프로포절 교육 수료식을 진행했다. 5월부터 두 달간 진행한 이번 교육은 사회복지 현장의 욕구를 반영해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제주 사랑의열매는 복지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경남

희망 2023 이웃사랑 유공자 포상식 개최



경남 사랑의열매는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유공자를 포상하기 위해 지난 6월 28일 희망 2023 이웃사랑 유공자 포상식을 개최했다. 포상식에서는 이웃사랑을 실천한 기업, 개인, 단체와 성금 모금에 크게 기여한 시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경남도지사 표창 18개와 경남 사랑의열매 회장 표창 25개를 수여했다.

2023 시원한 여름 나기, 나눔, 여름을 부탁해! 행사 개최



지난 7월 5일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및 18곳의 시군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2023 시원한 여름 나기 지원 사업 '나눔, 여름을 부탁해!' 행사를 진행했다.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폭염으로 고생하는 이웃을 위해 기획한 것으로, 총 2억 원 상당의 여름용품 키트를 도내 저소득 노인 및 아동·청소년 가정 2,000세대에 전달했다.

세종

한국남부발전(주) 신세종빛드림건설본부, 집중호우 피해 지원 성금 기탁



한국남부발전(주) 신세종빛드림건설본부(본부장 윤상욱)가 집중호우 피해 지원 성금과 이재민 구호 물품을 전달했다. 지난 7월 세종시에 많은 비가 내려 사상자와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신속하게 재난 지원금을 조성한 것. 윤상욱 본부장은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온정의 손길을 전해준 임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별하익스프레스(주), 우리동네 냉장고 사업 후원



식자재 생산 및 유통 기업 별하익스프레스(주)(대표 김진혁)가 세종 사랑의열매에 즉석식품을 기탁했다. 별하익스프레스(주)는 소고기국밥 등 즉석식품을 1회에 50팩, 월 2회씩 1년간 후원하기로 했으며, 기탁 물품은 도담동 민관 특화 사업 '우리동네 냉장고'를 통해 관내 취약 계층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상한 이상해씨



사랑의열매와 소중한 진심을 전하세요

중앙회	02-6262-3000	서울지회	02-3144-0101
부산지회	051-790-1400	대구지회	053-667-0530
인천지회	032-456-3333	광주지회	062-222-3566
대전지회	042-347-5171	울산지회	052-270-9000
경기지회	031-220-7900	경기북부	031-906-4028
강원지회	033-244-1662	충북지회	043-238-9100
충남지회	041-635-0340	전북지회	063-282-0606
전남지회	061-902-6800	경북지회	054-650-2600
경남지회	055-270-6700	제주지회	064-755-9810
세종지회	044-863-5400		



사랑의열매 다양한 기부 방법



ARS
060-700-1212
(한 통화에 3,000원)



문자
#9004
(한 통화에 2,000원)



QR 기부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기념일 기부 좋은 날, 기쁜 마음을 함께 나눠요
문의 02-6262-3084

계좌 기부 예금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민 003137-04-000306 농협 1082-01-001966
신한 100-013-446845 외환 068-13-21097-3 우리 052-581567-13-101 하나 399-810005-31705

상담 혹은 문의가 필요하다면 080-890-1212